



서울大同憲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5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謙 | 편집주간: 許 璉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미포구 도리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80-604-0011
 전자: 韓城·영광 | www.snua.or.kr

모교 출신 과학자 10명, '국가석학'에 선정됐다!



金鏡義교수



權炳世교수



白明鉉교수



郭鏡河교수



張基柱교수



高在英교수



金東皓교수



金聖根교수



李洙宗교수



金大植교수

총 11명 중 1명만 타고 출신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 재능을 확대하고 장기적·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가석학(Star Facul-

ty)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11명의 교수들 발표했다. (사진은 입학순)

이 가운데 성균관대 李永熙교수를 제외한 10명이 모교 출신이다. (4면에 계속)

분·과	성명	입학·출발년도	현재 직	전공	SCI 피인용 횟수
물리학	金 鏡 義	화학공학64-71	모교 물리학과 교수	인자광다이온	4,937
	張 基 柱	물리학72-76	KAIST 물리학과 교수	선자구조	4,324
	李 洙 宗	물리학78-82	모교 물리학부 교수	장광다이온	2,568
	金 大 植	물리학81-85	모교 물리학부 교수	나노구조	1,400
	白 明 鉉	화학67-71	모교 화학부 교수	강이금속화학	1,580
화학	金 聖 根	화학76-80	모교 화학부 교수	화학동역학	1,141
	金 興 池	화학76-80	연세대 화학과 교수	분광학	3,133
	權 炳 世	지리화65-72	울산대 생명과학부 교수	세포면역	1,742
생물학	郭 鏡 河	종종학69-7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분자세포생물	1,440
	高 在 英	의학75-81	울산대 신장내 교수	분자신경생물	4,565

관악추수

黃興錫교수가 환자맞춤형 인간재세포복제 줄기세포 기술을 발표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는 실망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黃興錫 줄기세포' 이야기로 신변방이 낮고 우리도 이런 재대로 된 노벨상 하나 갖게 되거나 싶었다. 黃교수가 노벨상을 타는 일은 때여 놓은 당상이자 단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삼다보린 세상에 이런 즐거움 일도 다 있구나 싶었고 안 되면 일도 덩달아 잘 풀렸다. '서울대 黃興錫교수'는 우리들의 영웅이고 우상이었다.

그런데 그 黃興錫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이언스'지 논문은 모두 조작이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한번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으면서 우리들 참담하게 만들었다. 어쩔 수밖에서던 코리

안 프리미엄은 졸지에 손가락질 받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전락했다. 기대와 자랑이 컸던 만큼 실망과 허탈감도 컸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 일로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절망할 것까지는 없다. '黃興錫 파동'으로 잃은 것 못지 않게 얻은 것도 많다. 무엇보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과 서울대 조사회가 한국과학계의 자정능력을 세계인들에게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신뢰도를 높인 것은 큰 소득이다.

그래도 '과학한국' 미래는 밝다

알다시피 黃興錫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문제점을 맨 처음 제기한 것은 우리의 젊은 생명과학도생이었다. 만약에 외국 과학자들이 먼저 '조작' 사실을 적발해냈다면 어쩔뻔 했는가.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한국에 쏟아질 지탄과 경멸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용기와 열정 못지 않게

제 실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오로지 진심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서울대 조사위의 모습도 보기에 좋았다.

한국과학계의 이러한 자정노력은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한국과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여기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黃興錫 파동은 역설적으로 진화위풍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丙寅年 정초부터 삼채받은 서울대인들의 가슴을 찢어 주는 밝은 소식이 날아들어 반갑다. 교육부가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학자를 선정해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석학(스타 패컬티)' 11명 가운데 10명이 서울대 동문들이고 그 중 6명은 서울대 교수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黃교수처럼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았어도 해당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모교 물리학부의 金鏡義교수 등 몇몇은 SCI 피인용 횟수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것에 근접해 있다. '과학한국'의 미래는 밝다. (仲)



林光洵 회장 신년인사



신년교례회에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시루떡 나눔행사를 가졌다.



鄭雲煥 총장 신년인사

“개교 60주년 맞아 서울대인의 자긍심 세우자”

신년회서 유공 등문 16명 시상

본회(회장 林光洵)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許 龍士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洵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들의 하나는 모교를 지원하고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며 “인대수익이 10% 이상 보장되는 장학재단을 헌 동창회관 자리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재개발이 완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본 설계에 이은 건축시행계획의 허가를 득하면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인들이 서서히 모체가 시작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기

반 삼아 올해에는 개교 60주년을 주제로 30만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을 끄러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林光洵회장이 지난 10월 16일 등산대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한 장학재단 건립 모금 활동에 그동안 참여한 3백여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10억원 이상 출연한 동문 7명을 호명하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해 행사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모교 鄭雲煥총장은 “취임이래 3년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서울대학교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노력함으로써 소수장예교육을 위한 정원축소와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대학구성원의 다양화와 국제화, 급여인상, 총장공관 축소와 교수아파트 개축 및 학대,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의 마련,



金在淳 명예회장 건배사

예교과퍼스 조성, 발전가금 확보, 그리고 학부후속세대 지원 정책제도 등을 실현시켰다”고 말했다.

또 “남은 일기동안 교육의 질 개선, 해외 명문대학교와의 교류 확대, ‘서울대 인지기’를 통한 국제 평가수준 제고, 서울대학교 법안화 준비 등에 힘을 쏟아 세계 일류 대학이라는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영욕의 한 제목

처럼, 박수 받으며 무대에서 떠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본회 鄭雲煥총장,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洵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李吉女·徐廷和·洪柱大·孫京植부회장, 모교 權壽赫 전임 총장, 鄭雲煥총장, 李錦仁 부총장, 申秀堯 명예 학장, 金炯珠삼안교과위원회 회장, 蕭建前 국무총리, 韓德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丙戌年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만찬에 앞서 한국 석학분야의 거목인 베이스비리온 吳錫明(성약 45-48 한양대 명예교수·조대 음대동창회장 역임)동문과 테너 안享一(성악 47-50 모교 명예교수) 동문 그리고 평생의 반주로 몸비를 이끄는 피아니스트 鄭錫亨(의학 45-49 모교 명예교수)동문이 50년 우정의 세월이 흘러나오는 감동적인 축하를 선사했다.

“청신에 실려라” ‘명태’ 등으로 한국 가극의 대



의대 李吉女 전임 회장(右)



朴容泰동문



劉碩玉동문



故 韓相宇동문



申碩釘동문



金添福동문



金光燦동문



金熙聲동문



金正國동문



吳元錫동문



金方赫동문



朴奎相동문



金鍾福동문



朴乘南동문



金采元동문



尹炳和동문

2006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 ① 제8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淸丘大賞 시상
- ②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보고
- ③ 안건 거론
- ④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8차·순회회 93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洵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丁長鎮 作

'Brain Power', acrylic color, 78x105cm, 2003.

<작가약력>

- ▲50~54년 모교 회내 의학과 졸업
- ▲57년 모교 대학원 졸업
- ▲70~80년 의문사상 노련
- ▲76~80년 수개월 임원직장
- ▲88년 서울올림픽 부외 가맹 조직위원장

- ▲90~92년 리지루성도의원 운영
- ▲93~96년 韓仁美로 8년 임원 출몰
- ▲현재 회내 회내 농구회장
- ▲장년 참가자도노련한면에서 전문

노티나무광장

최근 우리 나라에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 2년 전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은 일이 일어나더니 작년엔 두 차례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0 대 23, 0 대 5로 패배하는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용맹무쌍한 홍종필 정권도 배놓을 수 없는 사상 최초의 하나였다. 해가 바뀌자마자 대통령의 장관 기용을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희한한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장관이 "X만한 XX들" 운운하며여 정부 비판 편자들을 욕한 것이 보도된 것도 아마 사상 최초의 일인 것 같다. 현직 경찰관이 자기의 모자를 청와대에 보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일 처리를 비판한 일도 틀림없이 사상 최초의 일일 것이다.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상 최초의 일은 즐거세포의 영광과 몰락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사상 최초라고 우리는 얼마나 열광했는가.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은 조작됐고 없는

것이라는 사실 최초의 급반전에 또 얼마나 좌절했는가. 우리 역사에서 아마 이만한 사상 최초의 일도 다시 있진 않을 것이다. '황금마루'라는 과장한 후원집단도 사상 최초로 청와대 보좌관이 된 여교수에게 보낸 2억5천만 원도 사상 최초의 일일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 대상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일 또한 사상 처음의 일이 아닐까.

이처럼 최근 부쩍 자주 보게 되는 사상 최초의 일들은

스톱! '史上 최초' 행진

宋 鎮 赫

前중앙일보 논설위원
브노 논설위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이없게 하고, 성나게 하고, 혼란과 좌절감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 월드컵 4강 같은 기본 좋은 사상 최초의 일은 아련한 기억일 뿐이다.

왜 이런 사상 최초의 일이 계속될까. 혹,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풍류나 교양, 지식과 균형 감각 같은 가치들이 다는 몰상식, 철면피, 증오, 욕심, 폭 잡고 광내는 일 따위의 잔학한 요소들이 더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율해에도 여러 가지 큰 일이 많다. 지방 선거가 있고 개천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 문제, 경제·교육 문제, 국가 경쟁력 확보 등 큰 일이 쏠려 있다. 더 이상 비정상적·비상식적인 사상 최초의 일들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심각한 성과주의, 위선과 야심, 뛰는 언동, 노골적인 이기주의... 이런 패를을 이젠 좀 가라앉히고 율해부터는 좀 더 차분·침착하고 내실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하겠다. 대통령부터 사상 최초의 일을 좀 그만 들어야겠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 투자가 석유가격이 사상 최초로 60달러를 넘었다는 TV 자막을 보면서 이 불길하고 파란만장한 '사상 최초'의 행진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한다.

외부칼럼 소개

서울대 총동창회가 새 회관을 짓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잘 걷힌다고 한다. 1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만 11명이나 된다. 우수한 인재들의 모인 만큼 돈이 많기도 할 것 같지만 꼭 그래서가 아니다. 기적이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이렇다. 누가 돈을 냈다고 하자, 동창회는 동우들이 낸 돈을 모아 새로 회관을 짓는다. 이름은 장학빌딩, 이 이름 속에 사심 해답이 있다.

동창회는 이 방안을 운용해 임대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기부자 봉장에 임대수익 중 연평균이자 정도를 입금한다. 그러면 기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학생에게, 그 이자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서울대생이 아니어도 괜찮다. 기부자 이름을 딴 '○○○ 장학금'이란 창호도 붙인다. 기부자 이름은 회관 맨 위층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도 새겨진다. 1천만원 이상 내면 이런 명예가 주어진다.

세금에도 명예를 주었으면... 10억원을 낸 사람에게서 더 큰 명예가 주어진다. 회관은 총 18층 규모로 건설되는데 각 층이 기부자의 층으로 명명된다. '○○○층' 내지 'O○○층' 식이다. 더 있다. 기부자의 부조 홍상이 그 층의 벽에 부착된다.

이런 매력 때문인지 2백억원 모금에 1백40억원이 이미 걸렸다. 어떤 재미 동창도 1백만달러를 약속했다고 한다. 빌딩이 세워지는 마도 풍악동 일대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인근 공원으로 가는 열차역이 이곳에 생긴다고 하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동창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 회관에서 안락과 해소를 화두로 던진 이후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온갖

지난 2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에 趙賢宰 부장장 겸 산업부장이 집필한 매경포럼(세금)에 명예를 제라에서 분회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방법과 잘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다. 이에 참고로 그 내용을 동창회보에 소개한다. (편집자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해 정부 당국의 전략은 실패한 것 같다. 세금 전산을 전 국민으로 확산한 탓이다. 일부 부유층이 아닌 일반 월급쟁이에 맞춰야만 부유층이 건드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배우기' 식으로 돈을 걷어가는 방식 때문이다. 보충학습에 장학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건드렸으니 전 국민적 저항이 나올 만하다.

이를 총괄하는 재정부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끔"은 걱정도 나온다. 관



趙 賢 宰

매일경제신문
부국장 겸 산업부장

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강남에서는 이제 집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세금이 무섭기 때문이다. 가령 이월해 해보면 아떨까.

수입원래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종부세는 꽤 된다. 이들이 내는 세금을 아파트별로 걸어 ○○아파트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해서 특정 학교나 복지단체에 기부하면 아떨까.

10억원대가 넘는 강남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게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 추세를 감안하면 여의의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역대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겐 그 돈을 재원으로 해 개인별 장학재단 같은 걸 만들어주면 아떨까.

성장하면 자연스레 세수 증가

조세당국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집착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헌법조항 역시 지금은 다른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보다는 '세계 시민'의 시대다.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사람 중에는 국가에 뜬기느니 차라리 나라를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른헨타의 유수 장관들은 정부로부터의 피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에 본심을 미국으로 옮겨버린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 입의 입문예전 비로 영주권을 준다라고 한다.

증세를 고려할 때 또 생각할 문제가 있다. 지금 있는 데서 재래하지 않고 새로 운 투를 창출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야 한다. 셀러라면이 월급이 올라가 더 내는 세금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성장과 분배 논쟁과도 관련 있지만 '배우기' 식이 아니라 '기워져 나누는' 증세전략을 찾는 데 힘쓰면 아떨까.

(1면 국기선화 계속)

국가적화 지원사업 동문 대상자는 △물리학 분야: 金鎮義(화학공학64-71 모교 교수)·張基柱(물리학72-76 한국과학기술원 교수)·李珠宗(물리학78-82 모교 교수)·金大植(물리학81-85 모교 교수) △화학 분야: 白明賢(화학67-71 모교 교수)·金聖根(화학76-80 모교 교수)·金榮熙(화학76-80 연세대 교수) △생물학 분야: 權炳世(치의학65-72 울산대 교수)·鄭鎮河(동물학69-74 모교 교수)·高在英(의학75-81 울산대 교수) 등은 중이다.

임지물리와 권위자인 모교 물리학부 金鎮義교수는 SCI(과학지술논문 인용색인) 피인용 횟수가 4천9백37회로 가장 높았고, 울산대 高在英교수가 4천256회, KAIST 張基柱교수가 4천3백24회 순이었다. 모교 화학부 白明賢교수는 유일하게 여성 과학자로 평단에서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12면 참조)

이들 국가적화 교수는 올해부터 3년 종합실험분야의 경우 매년 2억원씩, 이론분야는 1억원의 기금 연구비를 지급받는다. 연구가 더 필요할 경우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동안 최대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선정된 국가적화에는 SCI에 자신의 논문이 1천회 이상 인용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요진상사, 임직심사, 전공심사, 국외 전문가 평가, 국가적화 선정위원회의 최종평가 등 5단계 심사를 거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보통 5천회의 SCI 지수를 보인다"면서 "국가적화에 뽑힌 연구자들의 성과도 이와 근접해 향후 노벨상 수상자로 국가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물리학, 생물학, 화학을 포함해 수학, 지구과학, 인문학 분야의 국가적화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 평가위원의 프로젝트에서 탈피해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관리·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별)

서울대 모금이 잘되는 이유

런 장학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걸 보면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모양이다. 이 기회에 정부의 세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 고마워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서울대동창회의 모금 방식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명예를 주면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온갖 핑계를 갖다붙이면서 세금을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얘기이지만 조세지



법과대학동창회

새해 인사회서 장기자랑 선보여

법과대학동창회(회장 丁海昌)는 지난 1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柱源(47졸)·金鈞男(49·52)원로 동문을 비롯해 '논회' 孫一振(51급)상임부회장, 모교 金哲洪(법학52·56) 명예교수, 裴命仁(법학52·56)변호사, 한국대학총장협회 李大源(법학53·57)이사장, 대연그룹 鄭文鎔(법학56·60)부회장, CJ그룹 孫永植(법학57·61)회장, 김낙흥(법학58·62)변호사, 千瑞興(행정62·66)대한변호사협회장, 金學元(법학66·70)·辛基南(법학70·74)국회의원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丁海昌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오양수산 金性洙회장이 10여원을 기부하셔서 낙산장학회 기금이 30여원으로 증액됐다"며 "金화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재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장학회를 발족해 장기 등산대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朴慶熙나문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여흥 시간에는 재학생 노래와 '동맹'의 중창을 비롯해 金澈浩(법학52·56)동문의 피아노 독주, 鄭世源(법학56·60)·金尙龍(행정59·63)동문의 가곡 독창, 李俊鎔(사법88·93)동문의 색소폰 연주, 朴泰憲(행정61·65)동문의 관소리 등 음악회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격조 높은 신년회를 연출했다.

간호대학동창회

尹順孝교수 간담회 회장 출마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敏子)는 지난 1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朴明宇(56졸)전임 회장, 간호대 朴貞浩(58·63) 명예교수·朴誠愛(66·70) 회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대회를 개최했다.

俞敏子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돌봄간담회, 벼룩시장 등 여러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창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시간이 됐다"며 "올해는 특별히 2월 22일에 실시하는 대한간호협회 회장선거에서 尹順孝교수가 출마예정인데 동문들이 만우음으로 도와줘 서울대인의 자질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尹順孝(69·73)동문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회원들을 만나면서 동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고 있다"며 "현실적인 간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尹동문은 현재 모교 간호대 교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맡고 있다.



상과대학동창회

총회서 '빛내자상'·'돋자상' 등 시상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豪)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邊德尹(경제45·51)·趙 淳(경제46·49) 명예교수, 한국동류협회 安台鎔(45·53)명예회장, 호안재단 李賢宰(경제48·53)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裴基正(상학64·68)위원장, 康泰昌(경영64·69)국회의원, 모교 鄭雲模(경제66·70)총장, 韓惠珠(경제67·71)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새내기 동문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洪龍豪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30명이 넘는 새내기 동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동창회를 한층 젊게 만든 일"이라며 "우리 동창회의 희망인 이들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과동창회는 '빛내자상'과 '돋자상'을 서정해 邊德尹동문과 이진산업 朴英珠(경제59·63) 대표에게 빛내자상을 수여했으며, 특기장학금을 출연해 준 45명의 동문에게 '돋자상'을 전달했다. 이어 섀터사 金在淳(경제45·52)교무과 朴容晟(경제59·65)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洪龍豪회장이 현금 1천만원을 후원한 것을 비롯해 한국은행 차 부(경제55·61)총재, 반디엔터테인먼트 金千武(무역58·64)대표, 신상식품 曹甲男(경제58·63)회장, 朴容晟 전임 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물품을 기증했다.

기계동문회

기계공학 육성위 구성

기계분회(회장 金 哲)는 지난 1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대회를 개최했다.

金 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의 존립 목적은 동문들끼리 친목 도모와 함께 후배들을 지원하는 일"이라며 "세계 제일 기계공학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후배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올 한 해 가정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서울대인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상선전자 宋志平(66·70)부사장이 '상선전자 메카트로닉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尹建泰(70·74)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본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주제를 강연했다. (南)

농생대동창회

개교 1백주년 행사 논의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농업유통 하나로클럽 3층에서 신년교과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장엔지니어링 鄭錫鎔(농공46·49)회장, 북방농업연구소 朴恒煥(농경제48·52)명예회장, 한국농촌개발연구소 尹梧憲(농공48·52)상임고문, 북방농업연구소 朴來敬(농학51·57)소장, 동창회 金大熙(농학51·55)부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金康植(축산52·56)회장, 韓圭正(축



산52·56)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대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尹勳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농생대가 개교 1백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기념해 모교와 공동으로 1백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생대동창회는 오는 9월 9일 'Challenge for change'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교와 함께 개교 1백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AMPP동창회

南正明회장 재선임

해양정책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는 최근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容鎔(1기)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2005년 사업보고, 6기 회원 입회식, 홈페이지(snu100.nascc.net) 우수 참여자 시상, 제3대 임원 선출, 노래경연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홈페이지 참여도 분석결과 오병철(1기)·최익환(2기)·차영문(3기)·지노석(4기)·김광익(5기)·유호복(6기)동문이 많은 글을 올리 우수 참여자로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날 임원 선출을 통해 南正明(1기)회장을 재선임했으며 사무총장에 선출된 신희태(5기)대표를 선임했다.

한편 이날에는 올해부터 동문 경조사에 회한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70세 이상 동문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좌로부터 李完根·李相勳·金漢奎·鄭在鳳등은

AMP동창회

AMP 대상 4명 선정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泳俊)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AM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익LMS 朴

輔(3기)부회장, CJ그룹 孫京植(23기·법학57·61)회장, 부원 제정범원 朴永憲(23기·외학58·64)이사장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한국약제 俞敬濤(14기)대표, 대한!국제창간위원회 李基勳(19기)회장, 신상이엔지 李完根(27기)회장,

한성 鄭在鳳(40기·사회사법60·64)대표가 선정됐다.

朴泳俊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AMP대상의 의미와 권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수상하신 네 분의 동문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업적과 성취를 통해 서울대 AMP 동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동창회보 제334호(1월 15일자) 8면 장하림님 건립기금 1천만원 출연자 명단에서 삼일방수간 '金振奎'사망의 한자명을 '金振奎'로 바로 잡습니다.



대구·경북지부

신임 회장에 李弘中동문 선출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池弘源)는 지난 1월 11일 대구시내 프린스호텔 갈리리홀에서 2006년도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화성산업 李弘中(보목공학67-71)회장을 선출했으며 이날 총회를 통해 동문들은 단정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또 池弘源

(법학58-64)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池海寧(행정61-65)대구광역시장의 추사에 이어 洪 哲(경제65-69)대구·경북연구위원장이 '대구·경북지부의 발전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아울협회 대구시지부 소속 미술사 3명을 초청, 미술 공연을 감상했고, 이날 참석자 중 최고선배인 李重雨(건축46-49)인신도전 부사장)등문의 건배 제의와 함께 만찬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徐正石(법학65-69)대구지방변호사회장, 대구광역시 金東鎔(경영69-73)정무부시장, 洪哲模(사회교육70-74)대구지방국채청장, 한국은행 뽐현一(경제70-74)대구·경북본부장, 삼익LMS 陳榮煥(AIP 97)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북경지부

李忠求회장 재선임

북경지부동창회(회장 李忠求)는 지난 12월 14일 북경 톈스키호텔 향우관에서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金秀麗(수의학65-69)고

문이 본회 林光洙회장을 대신해 李忠求(중문70-74)회장(사진右)에게 본회에서 제작 지원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李忠求회장을 재선출했다.

이날 선임된 2006년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楊榮順(중문63-67)·金秀麗·金東鎔(잠사학66-70)·洪星杓(공업교육69-73)·金聖奎(중문69-73)·李斗燮(중문71-75)·문은 △회장: 李忠求
문은 △부회장: 智聖勳(교육학71-77)·朴在翼(중문74-78)·金永珍(영문75-83)·金顯載(의학76-83)·尹德鎔(중문77-81)·문은 △총무: 高永旭(조선공학82-87)·吳光旭(지질과학83-87)·白鐵碩(중문90-96)·李東元(체육교육92-96)·문은



경명대학동창회

金潤澤·宋圭政동문 수상

경명대학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최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한

宋圭政(70주·사학63-67)회장을 선정했다. 이어 모교 경영대 宋在鎔(경영83-87)교수에게 우수 강의를 수여했으며 尹錫結(물리58-63)·崔鍾泰에게 교수에게 정년 퇴직 기념 감사패를 증정했다.

라니움에서 송년모임 겸 제6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植鎔고문, 모교 경영대학 安相旭학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대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경명인대상 수상자로 양천철학 회 金潤澤(68-70)이사장, 원스틸



좌로부터 衣相勳·宋圭政·金潤澤·金英大가 기념

이날 우수 강의를 받은 宋在鎔교수는 "글로벌 자치기관 경제에서의 변화와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金學後회장 선출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學)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소공성 롯데호텔 2층 예메발드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동아일보 金學後(정치61-65)이사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金壽熙(정치66-70)·裴光宣(외교66-70)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祖履(정치45-49)·吳在熙(정치53-57)·高建(정치56-60)·韓昇奎(외교58-62)·南仲九(정치58-64)·許 鎭(정치64-68)동문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동승클럽

정 총에 80여명 모여

문리대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裴勳勳)은 최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80여 명의 동문

이 참석해 학창시절과 동승동 교정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裴勳勳회장은 "지금까지 모임 중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했길 바란다"며 "오늘 특별히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생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고 말했다. (南)



대전·충남지부

신년회서 새해 소망·덕담 나눠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奎)는 지난 1월 9일 대전시 유성관광호텔 갈리리홀에서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吳應奎(의학58-62)원택코리아 회장이 회장을 인사말을 통해 "충동창회에서 장려했던 기법들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동문들도 벼룩 한 장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이를 지원하자"고 독려했다.

洪興植(법학70-74)대전교감장의 추사에 이어 金康進(약학64-68)동문약국 대표)등문이 "서울대 배

교문이 나온 것에 대해 동문들도 반성할 점이 있다"며 "지역 개발과 어려운 이웃들이 활동을 펼쳐 서울대와 동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자"고 제언했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鄭光和(물리66-70)원장은 "첫 여성 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모교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막단 '양심을 리듬데'가 선보인 가곡 '축배의 노래', '광대자의 첫 사랑' 등을 감상하면서 희망찬 신년을 기원했으며, 임동제와 李金鎔(약학55-59)본회 부회장이 협찬한 이로운 나만관드를 선물로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대학 鄭宗澤(법학54-58)본회 부회장)학장, 충남대 吳錫洙(화학과학68-75)총장, 李圭興(법학70-74)대전지법원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亨)

포항지부

동호회 활성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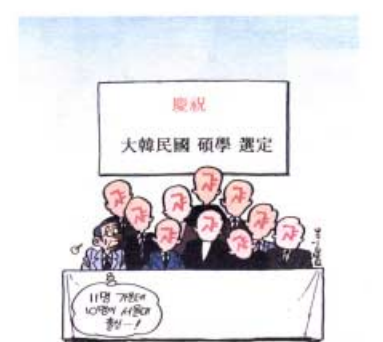
포항지부동창회(회장 洪相福)는 지난 1월 24일 포항시내 시그너스호텔 토파즈룸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洪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임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특히 李鍾漢(화학62-69)삼근 부회장은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7080'의 활동이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시켜 젊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악회, 바둑회, 골프모임 등 각 동호회 모임에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는 뜻을 밝혔다.

마포

李元勳



보건대학원동창회 美求美 회장

(모교 수의학과 초빙교수)

보건대학원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姜美求(69·71·수의학59·64)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姜회장은 "개척자 정신을 갖고 일상적인 동창회 모임을 넘어 보건대학원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보겠다"며 동창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동창회에 대한 소개.

"보건대학원동창회는 지난 61년 설립된 현재 박사·특별과정 동문을 포함해 약 4천여 명이 각 보건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산대회와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서울대총동창회에 특기장학금 1억원을 출연해 매년 2명 이상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財源鉅 전입 회장에서 박사·특별과정 동문을 아우르는 담부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지방지부 및 직능 기술별 조직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 지부를 설치해 미주 동문을 모으는 장구 역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동창회 모임에서 벗어나 보건대학원의 특징을 살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동창회 열도 알뜰한 봄에 맞춰 하길 바라는 참여력을 갖고 다짐을 살리



"미주지역 등 동문 네트워크 체계화"

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5월에 선출돼 현재 보건·환경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통일 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곳

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단순 식량지원보다는 생산기술 등의 개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건대학원동창회가 대북지원 사업과 연관해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 중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지역·직장 등 공공단체로부터 해외 모든 동문들까지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범종교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보건의 증진 속에 우뚝 서서 책임을 다하길 바라고 우리가 누려온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총신에 교향인 姜美求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한국수의보건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기체인 대령EPC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후)

관악무역인회 表相基 회장

(상지상사 회장)

관악무역인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表相基(원자력공학61·65 상지상사 회장)를 선출했다. 이 새 신임 表회장을 만나 소감과 개인사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회장에 선임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관악무역인회는 수습협회 회원들 가운데 모교 동문이 모여 만든 동창회입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목적을 둔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만큼 동창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동문들 사업체의 번창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하죠. 나 우선 남장은 많이 모이는데 동문을 돌 생각입니다."

-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동문들 근황은.

"최근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흐름만을 믿을 수는 없죠.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들의 재무자나 산업시설 증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다. 과거 20~30년 전 우리 경제가 연 12%씩 성장할 당시에는 실물경제가 튼튼했고 산업 기반이 튼튼해 장래가 보장됐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업계에 종사하는 동문들도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는 많았다고 봅니다."

- 상지상사 소개를.

"1978년 설립돼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우선 많이 모이도록 노력하겠다"

소 관련 언론 및 기자재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서초세무사에서 타인 상은 어떤 상인지.

"성심한 납세자로 표창을 받았습다. 세법에 따라 소득에 맞게 납세했더니 그런 상을 주더라고요. 성심한 납세자들을 좀 더 발굴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이 돌아가야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죠."

- 예술의 전당 후원도 하시는데.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이 많았을 때는 국제 봉사활동인 청년회소속(JCI)에서 활동을 했죠. 지금은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문화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해야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죠."

- 총동창회가 장학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 말씀.

"현재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분들께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데 사실 모교활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할드 시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

SGS동창회 全煥奎 회장

(진흥기업 대표)

도시·환경교역정책과정(SGS)동창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진흥기업 全煥奎(3기)대표를 선출했다. 이 새 신임 全회장을 만나 운영계획, 개인사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동창회 소개를.

"현재 회원수는 1천명 정도인데 아직 시작하는 동창회라고 볼 수 있죠. 동문들 가운데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고 그 분야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SGS 과정은 실무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다뤄 환경과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운영상에 어려움이냐 문제점은.

"지법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모교와의 연계도 중요한 본래라고 생각합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모색하며 모임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 진흥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출세가 47년 됐습니다. 건설업 중에서는 역사가 길다고 볼 수 있죠."

-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19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교되길"

흥기업이 12년간 은행관리를 받았고 99년에 벗어났죠. 현재는 규모가 큰 건설회사였습니다. 중동, 유럽, 영국, 미국 등 세

계 각지에 지사가 있었고 직원도 2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조치 당시 정부에서 진흥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몫을 넘기는 바람에 힘들어졌죠."

- 회사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2002년부터 경영을 맡기 시작했는데 2003년부터 적지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신문" 사장은 어떤 계기로 맡게 되셨는지.

"문민정부 때였는데 한국부동산신문이 부실화되면서 실무자 가운데 대표를 찾던 중 저를 택한 것 같습니다. 본의가 아니라 제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 출세로 모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았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모교가 그간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모교는 세계적인 수준에 우뚝 올라서야 하고 국민들의 기대만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후)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동문가족의 예비 신랑신부 위한 웨딩서비스 실시



본회 '웨딩플래닝센터' 운영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은 결혼설계

혼수·예식 한번에 OK

본회는 올봄부터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에 관한 설계·상담 등 전반적인 웨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최근 결혼을 앞둔 동문 또는 동문 자녀에게 예산 및 일정 짜기, 혼수 장단, 예식홀과 신혼여행지 선택, 결혼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웨딩플래닝센터를 운영한다. 또 이 센터를 운영할 본부장에 이화여대 웨딩플래너 전문가과정 수료생인 신수영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포 농장회관 관악홀을 통해 예식장을 해온 본회는 시간에 맞춰 결혼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돌만의 독특한 결혼

식을 올리고 싶은 까다로운 예비 신랑신부들의 요구 등을 충족시키고자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결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랜 경험과 최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문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며, 가족간 단결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이트 개설했다.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도우미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라이프 플래너'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 걸음을 서울대공동창회 웨딩플래닝센터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예약 및 상담 문의 : 申敬堯 본부장 716-2230)

결혼은 인생자재로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이며 파타다. 더욱이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두 집안 사이의 커다란 축제이다. 따라서 가족 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은 결혼 행사를 집안의 대사로 여기고,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많은 귀동냥을 해서 정보를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랑신부들이 과거 가족들이 귀동냥해준 경험의 정보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기본정보를 얻고, 결혼에 필요한 재만 과정을 도와줄 웨딩플래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웨딩플래너란 결혼을 진행하는 예비 신랑신부의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혼수, 예식장소 선택, 허니문 등 필요한 모든 과정을 기획 대행해주고,

더 나아가 결혼 준비 중에 일어나는 갈등과 앞으로의 신혼생활에 대해 상담해주기도 하는 전문가이다.

통계에 의하면 웨딩플래너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초기에는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결혼상품을 찾고자 웨딩플래너를 이용하는 신랑신부들이 빠른 추세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대 동문과 그 가족들

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혼 도우방(SNUA Wedding Planning Center)을 준비 중이며, 2월 중순경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SNUA 웨딩플래닝센터는 동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 마지막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



申敬堯 본부장

결혼상당부터 가정문화 확립까지 따뜻하고 즐거운 서비스 제공할 터

며, 다음 세 가지를 동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는 하이퍼커드 감각의 밀착 서비스이다. 결혼상담 의뢰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간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로 감동을 주고자 하며, 함께 준비하면서 준비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안에서의 다양한 행사를 도와주는 라이프 플래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둘째는 건전한 가정문화 확립을 위한 e-홈의 제공이다. 센터를 통해 결혼을 진행한 신랑신부들에게 가족 전통 홈페이지를 제공해 가족간 이질감을 희박하고 가족 모두의 공감대와 일체감을 찾아주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가족끼리 ID를 나눠 갖고 가족 신문, 전자앨범, 가족박물관, 가족방송국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

셋째는 센터를 통해 결혼한 예비부부와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부학교 모인, 행복가정꾸리기 모임 등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부부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강의도 듣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건강한 부

부관계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정보화 및 디지털시대를 거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경쟁과 속도가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성과 여유를 갈망하고 있다. SNUA 웨딩플래닝센터는 다양한 웨딩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하이퍼커드를 근거로 따뜻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출발이 동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노벨상은 저번 탄탄하고 국가과학 수준 인정받아야 가능”

동문을 찾아서

국가석학 ‘홍일점’ 白明鉉교수

최근 국가석학(Star Faculty)에 선정된 과학자 중 유일한 여성인 모교 화학부 白明鉉(화학67-71)교수는 전이금속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매년 여러 국제 학술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하며 동양인 여성과학자 처음으로 ‘국제수소 및 응용화학 총연맹(IIAPAC)’ 무기화학분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학자는 연구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한자코 인터뷰를 사용한 희곡수업을 어렵게 만나 국가석학 선정 소감과 향후 연구계획 등을 들어봤다.

— 국가석학에 선정된 소감 한 말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세계 과학기술은 문 인용색인(SCI) 인용을 했을 때 합계가 1천회 이상 된 과학자 중 기문을 충족한 분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신청한 것인데, 국가석학이란 이름이 붙어 언론에 크게 보도될 줄은 몰랐어요. 또 국가석학을 노벨상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조금 부끄러워요. 노벨상은 한 개인이 독창적인 연구를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뒤따라오는 과학자가 많아서 새로운 학문분야가 발전할 해야 가능한 것이죠. 저번이 틀렸다고 그 나라의 과학수익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답니다.”

— 연구비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앞보다 집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썼나’,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몇 편이 실렸나’ 등 양을 기준으로 연구기치가 측정되고 있었거든요.”

— 어느 논문의 인용이 가장 많았나요.

“97년 이후에 쓴 소재관련 논문에서 인용이 많이 됐어요. 게다가 화합물들을 이용해 초분자 재료를 만든 논문인데, 처음 시도한 것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인용이 많이 된 비결이 있다면.

“한국식으로 보면 논문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 도전하죠. 낯이 한 것을 모험하는 것은 지장 맞지 않아요. 논문도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극 정성을 들여 내면이 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새로운 분야의 주제를 완벽성을 기해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완벽주의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힘들 거예요.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으면, 실험도 미흡하면 다시 하고 데이터도 의심스러우면 처음부터 다시 기본값을 일러라고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참정적인 진리거든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바뀌죠. 그런데 그 참정적인 진리마저 엉터리가 되면 과학이 존재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을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든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은 참정해야 하는 것이고 ‘참고되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 애착이 가는 연구구편.

“저를 가장 애 먹였던 연구가 있어요. 온 실험결과를 내는 이산화탄소를 메탄가스로 바꾸는 땅 속 박테리아의 모델화합물에 관한 연구인데 화합물을 다루기가 굉장히 고상스러운 연구였죠. 그 논문을 미국의 한 학회에 보냈는데, 심사위원들이 선택이 전혀 없는 결과라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3년을 더 연구하며 고치고 썼죠. 나중에 다시 보낼 때는 A4용지 80장이 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리뷰과정 없이 무수정 통과시켜 논문을 낸지 2달만에 미국 화학회지에 나왔어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논문에 애정을 많이 느껴요.”

— 최근 연구하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죠.

“현재 수소 저장체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수소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저번이 너무 취약해서 걱정입니다. 화학자 수가 일본의 10분의 1 밖에 안 되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열악해요. 일본, 중국은 계속 늘고 있는데, 한국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머리 쓰는 순수 학과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단단한 시럽에 길들여져 있어서 머리 쓰는 것을 싫

— 연구하라, 아이들 가르치랴 많
이 바쁘실 텐데, 집안 일은 언제 하
세요.

“22살 때 학부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 같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2년 만에 아이를 낳고, 이기 키우면서 박사학위도 받았죠. 평생을 집안 일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할 만해요. 집에 가도 일을 끊고 없이 계속 움직이죠. 화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자지고 쉼은 요리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요.

“평생을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올해 연세가 여든이신데, 얼마 전까지 운전권을 하셨어요. 컴퓨터도 굉장히 잘 다루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이메일도 좋은 시, 아름다운 동영상도 보내 주시곤 하세요. 요즘엔 게임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모든 라디오 채널 돌려가면서 영어공부를 하셨어요.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수영, 수산스키 등 운동도 잘 하세요.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식·재능 등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었죠. 어머니는 그것을 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 화학과 여자동행회 회장도 하고 계신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과 중에서 화학과에 여학생이 많았어요. 지난 81년 柳潤淑(52-56)·元淑淑(54-58)·金熙子(62-66)등분과 재가 주축이 해서 여자동행회를 발족했죠. 현재 36회 졸업생까지 2백14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한 말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고생을 탐하고 관한 것만 찾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내가 나를 뛰어넘어 살아야 보람되고 행복하답니다. 왜 사람들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공계를 특별히 기피할 이유는 없죠. 바깥 생각에 보면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면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연과학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그 기쁨을 많은 학생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南)

수소車 핵심부품인 수소 저장체 연구

徐正憲교수와 실험 작에서 평생 배필로

수소 저장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중입니다. 현재 물에 들어있는 수소를 수소수소 분자를 영구적으로 발생시키는 고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또 수소수소와 질아닐론인 휘발유를 발생시키는 고체도 생각하고 있고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는 거죠.”

— 50대 후반인데도 이렇듯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시네요.

“제가 처음 교수직을 맡았을 때 5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할다’고 동료교수들에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엔 50세 넘으면 연구년을 보면 ‘왜 아직까지 여기 계시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나이 들어서까지 여자과학자란 소리 듣기가 좀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싶어요. 가끔 동료 교수님들이 왜 아직도 여기 있고나, 약속 지키라고 농담하죠. 여전히 계속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니까.”

— 우리 나라 화학 수준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에요.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교수님들 수준은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대도 미국의 웬만한 주립대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학생들을 좀 위대해줄 가지 못할 바에는 여기서 공부하라고 권하는 편이죠.

아하는 거예요. 과학적 마인드를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 교육으로는 답이 없어요. 이공계 과학기술이 없으면 경제도 없는데 큰 일입니다.”

— 남편인 徐正憲교수님과 커피스 커피를 하고 들었는데.

“학부 2학년 때 실험 짝이었는데 평생 짝이 됐죠. 당시에는 법륜까지 실험을 할 때가 많아 어느 날 뽕이 저녁밥을 먹고 돌아오니까 실험실 창문에 온갖 낙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둘이 사귀어라’ 등 요란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늘 만나는 데도 항상 연애편지를 보내줬어요. 지금도 둘이 주고받은 연애편지를 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白明鉉 교수는

194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모교 화학과 졸업 후 74년과 76년 미시카고대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77년부터 모교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0년부터는 화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97년 전 세계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국제 과학지널인 ‘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European Journal of Inorganic Chemistry’, ‘Bull. Chem. Soc. Japan’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유려의 여성과학자상’ 수상, 2004년 ‘달고실고 회고실은 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동문님들도 다양한 언어교육 서비스 받아보세요”

여름 한국어 단기연수·맞춤교육 ‘인기’

자체 개발한 TEPS ... 연간 20만명 시험바

“얼마 전 정년을 맞으신 모교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손녀의 손을 잡고 오시고 언어교육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 손녀에게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일본어 강습을 수강하게 하려고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손녀에게 강의에 대해 물어보시려 했었는데 ‘모습을 보고 재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분만 아니라 졸업하신 동문들께도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

개방돼왔던 외국어교육센터는 작년 가을부터 프로그램을 다문화·전문화하고 동문들께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1백40명에 이르는 교수와 교직원, 하루 1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언어교육원은 한국어교육센터(소장 張素媛·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센터(소장 차정호·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언어능력측정센터(소장 柳斗善·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권위 있는 학술지 ‘어학연구’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언어교육연구센터(소장 南承昊·모교 언어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다.

1969년 한국어반으로 시작한 한국어교육센터는 연간 1천7백여 명의 외국인과 해외 교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10주로 이루어지는 정규반(1~6급), 주로 서울에 교환학생을 위한 저녁 반과 모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위한 말레이시아 프로그램, 일본어교를 위한 일본인 단기연수 과정, 주로 미국교포 대학생들을 위한 여름 단기연수 과정, 외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은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학생이 언어를 좀 더 빠르게 배우고 싶은 미국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교



재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한 명의 외국인을 책임지고 수업 후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는 ‘서울대 학생도우미’ 서비스는 언어

교육원의 자랑이라고.

“올해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재미교포와 영어권 학생을 위한 ‘5주 여름 한국어 단기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있는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이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1 대 1 발음교정과 한국어 전문가 특강까지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판문점 견학, 이천 도자기요 방문, 한국요리 만들기 등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일반 어학원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 수준의 강의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에 걸쳐 매

학기 9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전 영역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다. 2005년 가을부터 신설한 교정·한영번역서비스, 고 각 맞춤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 등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문들께서도 교정·한영번역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연수를 앞두고 있는 재사, 의사들을 위한 수업을 시범중입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회화연습이 필요하시거나 발음연습, 국제학회 발표연습 등 특별한 수요가 있으실 때 상담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관 및 공공단체 직원과 대학생, 일반인 등 연간 20여 만명이 지원하고 있는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언어능력측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영어능력 검증시험이다.

“한국형 표준화된 영어능력측정 시험인 TEPS는 각 영역별 난이도별 점수를 산출하고, 다시 각 영역을 18개 부문으로 나눠 능력별 성취도를 알려 줍니다. 따라서 성적표를 통해 수험자의 장점과 약점은 물론 후회 학습 방향까지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어학시험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자의 변별력이 높다는 점이 자랑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영어실력을 가늠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싶다면 저렴한 응시료로 TEPS를 실시 것을 권유합니다.”

洪基瑞원장은 앞으로 서울대를 국제화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 최대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언어교육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해외동문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첫 여름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름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문들께서 필요하신 언어교육 서비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교 언어교육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

洪基瑞 모교 언어교육원장

특별 인터뷰

려아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 설치된 이래 한국어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자 국가 공인 언어능력 측정기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언어연구기관으로 모교와 국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는 언어교육원(language.snu.ac.kr)은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洪基瑞(영문 79-83 도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원장은 언어교육원을 소개하면서 “언어교육원장도 유학 7년이 전 어학연구소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2001년 어학연구소에서 언어교육원으로 승격된 후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총장님과 본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2년 전 미국 예일대로부터 국내 최고의 한국어교육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한국어교육센터는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수가 최근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그동안 재학생과 교직원에게만

동문기자 취재수첩

기사에는 '오폭' 가능성이 상존한다

세상에 오보란 없습디다. 무심결에 뵈는 말이 누군가를 상심시키기 십상인데, 사회적 공황에 담은 세심하지 못한 글로 인한 필화야 이만저만하겠습니까?

사실 관계가 명확히 잘못된 오보가 아니더라도, 글(기사)에는 '誤爆'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 마음을 아리게 했던 전과를 진술하면서 결백과 순정을 호소할 내용은 없습디다. 언론을 위한 변명을 의도한 바는 더더욱 아납디다.

1996년 여름, 군영 파사를 때려내보낼 만큼 비가 한 달이도 내렸고 그 쪽으로 한 부대 병사 십수 명이 취침 중 사망한 일이 있었습디다. 합동 영결식에서 오열하는 부모들을 붙잡고 가슴에 묻은 아들을 흔자이름·나이·주소를 열심히 캐묻는 동안 사나운 제 팔자를 부진 뒀했지만, 그런 자책이 무슨 소용 있었겠습니까?

2002년, 이번에도 강일도 윤리단 예경니다. 교풍이 거의 무절점 그 마을에서 극적인 태풍 피해자를 찾아 해마다 Q씨를 가까스로 만났습디다. 세간이 거의 거덜난 그 한을을 다 정도를 무렵 "다른 이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니 내 얘기는 쓰지 말아 달라"는 뜻밖의 하소연을 듣고도,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디다. Q씨는 그로 인해 입

장 난처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디다. 무엇이 앞 권리고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가요?

예를들면 올림픽의 피날레인 마라톤 경기 직전, 기대주 이봉주 선수의 중남 본가는 금메달의 꿈에 부른 가족과 이웃들로 일제감치 잔치 분위기였습디다. 그날 마강 시간 사정상 금메달을 팔 것을 상정한 채 가족과 이웃의 감격적 소감을 미리 받아 놓았는데, 그 회의를 금메달에 맞춰 減해서 써야 할 때는 처연한 기분이 들었습디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정직한 은메달이 될 소중하다는 뜻은 아납디다.)

IMF, 그 소름 돋던 시기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황버섯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는 이가 몸소 찾아왔고, 답적 미담사례로 소개했습디다. "무료로 배부한 것은 맞는데 그건 극소량이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구입하라고 했다"는 독자의 항의성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예경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엔, 독자가 然하는 위대로운 사업가들이 많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살할 이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 그를 로비 정황회 당시 여러 실세의 돈주머니처럼 언급된 한 사람이 집에 찾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디다. 그를 만난 뒤 마치 삼라전 벼이듯 대화했던 새벽 수 시

간의 즉석 술자리는, 그 직전 몇 시간의 집 앞 잠복보다 훨씬 고맙습디다. 자정 무렵 집에 쳐들어 온 불침객에게 못 마시는 술까지 내주었던 그 분은, 시간이 흘러 '혐의 없음'으로 불려졌고 기사를 물렸던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로 구차하게 자유했습디다. 저와의 심야 대화가 세간의 의



朴 瑛 錫

(사회87-91)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기자

심을 잔뜩 받고 있던 그에게 解脫의 시간이라도 되었길 간구했습디다.

"당신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서열인들에게 심대한 상처를 남겼습디다. 즉각적인 해명과 정정을 요구합니다." 서울도심에 큰 책방이 자리잡는다는 뉴스를, '도심인에게 문화적 습터가 사라진다'면서 제법 비장한 톤으로 쓰고 난 뒤 제게 보내진 항의의 메일이었습디다.

종로서적·태평서적 등 중대형 책방이 잇따라 사라지고 그 문화공간이 폐업리 레스토랑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하필 강남으로 이전해 범람하게 영업중인 D서적을 서울 중심가에서 폐업한 서점 목록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 서점을 찾아가 사죄하고, 수도권에 통근·통학하는 고학들을 위해 새벽 일찍 열어 늦은 밤 문을 닫는, 대를 이은 그들의 분투를 담아 '서점인들의 아름다운 고집'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정정 기사를 대신한 뒤 예도 스스로를 향한 분별이는 되지 않았습디다. D서적은 그 책 포장이 그림이 아직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중화시절 즐겨 찾았던 책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 상호신문공고에서 고객 예금인출 사태를 빚어 놓아 거센 항의를 받았던 일을 떠올리던 아직도 찝찝합니다. 스무 번 넘게 전화취재를 하면서 항도어의 복모음 발음을 단모음으로 잘못 알아들은 사실에 억울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디다. 사투리를, 그것도 제 본방 발음을 못 알아들어 소동을 빚었다는 일화를, 술마 다 많은 이들이 믿어 줄까요?

술 마 넘어갈 만한 시간-사고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생길 관에, 화려한 오보도 아니고 웬 김빠진 聞談을 늘어놓았다 하실 동문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홉 명이 각광 받는 기사라도 소외될 수 있는 한 명까지 배려해야 한다는, 새해 맞이 초심의 되새김점으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홍콩 원정 시위'와 '다이나믹 코리아'

홍콩 경찰이 한국 농민들의 시위에 대비해 고도소를 비우는 등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잇따라고 있는 가운데 1전5백명이나 되는 우리 원정 시위대가 '무옥투쟁'이라고 발언한 어떡하나 하는 불길한 예감 속에 떠나는 홍콩 출정길... 출정 목적은 WTO각국회의의 취재이지만, 정작 관심은 회의보다는 원정 시위대였다. WTO가 회의 전부터 목표수준을 대폭 낮춰 이미 '김빠진 회의'가 될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외신들의 관심도 한국 농민들의 시위에 쏠렸다. WTO 행사 기간 내내 개척국인 홍콩 TV에 비친 것은 WTO회의장 전 관례선전파가 아니라, 우리 원정 시위대가 펼친 시위 모습이었다.

바다에 몸을 던지는 해상 시위와 산책을 입은 채 펼쳐진 상여 시위, 그리고 촛불 시위, 삼보일배까지 각종 아이디어가 줄줄이 연 신기하고 놀라운 기획 시위를, 여기에 빼어난 방배를 덧붙여주고, 김희철의 쓰레기를 치우는 시위대의 모습이 연일 언론에 집중 소개되면서 WTO 행사 기간 한국 원정 시위대는 '다이나믹 코리아' '제2의 한류'라는 극한까지 돌며 홍콩 시민들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취재 중 만난 홍콩 시민은 이를 '축제 같

다'고 했고, 몇 걸음씩을 미친 신랑신부는 시위대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네 세대와 활동가들이 한국 시위대의 열을 따라 배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고 '해상 시위' 등 모방 시위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부 대표단의 한 관리는 원정 시위대가 수천만 달러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고, 외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시위를 받고 있다는 '의식'과 '시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밤, 원정 시위대가 '저지선 돌파를 위한 총력 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시위대는 '열대 그레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공동 탑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우려했던 현실로 되면서 시위 상황은 취재해온 한국 기자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을 것이 왔다", "결국은 ...역시나!"

며칠째 원정 시위 상황을 생중계 해온 홍콩 TV에는 이제 최파괴 등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홍콩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해방구'로 변해버린 홍콩 시내 모습이 집중적으로 비쳐졌다. 화려한 단에는 '부상자 속출' '지하철 폐쇄' '자랑 통행 금지' '주인 집근 자체' 등 사태의 긴

박성을 알리는 큼지막한 자막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윽고 홍콩 보안국장이 TV에 나타나 시위장소인 안제이 주변에 대한 주민 소개령을 내리며 홍콩법에 따른 시위 강제적인 방침을 공표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 홍콩 경찰은 장갑차에 최루탄을 쏘으며 관례선전파 수십 미터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들어갔다. 홍콩에서 30여 년 만



鄭 仁 錫

(정지87-92)

KBS 경제기획팀 기자

에 이복진 최루탄 발사, 시위대 전여 명이 순식간에 경찰에 포위됐고, 이들은 방패작업 끝에 전원 연행됐다. 그나마 다들스런 것은 시위대가 '배기 투쟁'을 선택하면서 우려됐던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점

였다.

12일간 진행된 이번 홍콩 취재는 그야말로 잡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한 최악의 해외 출장, 속된 말로 '홍콩 3천만 해외 출장'의 원정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귀국길에 나를 괴롭혀 온 지칠 대로 지친 귀환보다는 원정 시위가 난장판과 같았습디다. '홍콩가서 수십 미터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들어갔다. 홍콩에서 30여 년 만

였다. 한 기막 희망을 갖게 한 것은 농민들의 강기적 씨가 홍콩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용기'였다. 시위 지도부의 일원으로 원정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강 의원은 폭력 시위 사태 뒤 기자회견을 찾아 '농민들이 한 번 볼에 뵈 관행을 바꾸는 게 합치 않겠지만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본성과 함께 사회를 토론했다.

전원철·홍대표 농민 시위 사건이 이어 홍콩 원정 시위 사태, 그리고 강 의원의 고백이 기록화되면서 시위 문화를 바꾸어 가는 사회적 논의가 급류를 타고 갔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든가! 비록 천명의 시위대가 외국 경찰에 연행되고 일부는 재차까지 받는 총격을 치르긴 했지만 이번 일이 관성에 쫓은 시위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결단을 소망해본다.

서울대 가족

丘仁煥 문학과 문학 교육연구소장

자녀·사위·조카 등 9명이 교수로 활약

“아침 식사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해요”

지난해 11월 18일 '운당 구인환 문학전집 (전 27권)'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한국 현대 문학의 산 증인인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명예교수·문학과 문학 교육연구소장) 동문. 그에게 50년간 간행한 장·단편집, 수필과 기행문, 연극서, 평전, 대담, 서평 만점이나 오래된 '소장품'이 있다. '문학과 문학 교육연구소'를 방문하면 먼저 색이 바랜 소파와 탁자가 눈에 띈다.

“30년이 다 돼 갑니다.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살던 때부터 있었는데 이후 모교 연구실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됐죠. 온 가족이 입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가족회의를 열곤 했는데, 서로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쑥은 없어도 여기에 앉으면 마음이 편하고 또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소설가이자 비평가이며 국어교육학자인 丘동문은 한 가지를 하기에 어려운 일인데, 이 모두를 균형 있게 소화시키는 인물로 꼽힌다. 선전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기질은 丘동문의 자녀에게도 이어진다.

1남3녀 중 장녀 丘在玉(가정교육68-72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자연과학대학장) 동문과 3녀 丘在珍(국문85-89 국민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동문은 대학교수로, 차녀 丘在熙씨는 중학교 교사 및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큰사위 金榮樺(행대원71-73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행정연구원장) 동문과 막내사위 李政鉉(국문85-91·경대원95-97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동문도 후배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차녀 丘在熙씨의 장녀, 즉 丘仁煥 동문의 외손녀인 曹해나 양은 2005년 모교에 입학했다.



좌로부터 네 번째 丘在玉, 曹해나, 한 명 건너 丘在玉·丘仁煥·李政鉉, 한 명 건너 丘在珍, 맨 끝 金榮樺 동문

丘仁煥동문의 남동생 丘昌煥(조선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씨 가족인 제수 文瑛淳(국문51-55 前광주수퍼마켓어중 교장)동문을 비롯해 큰조카 丘在熙(경제77-81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교무부처장)동문과 막내조카사위 柳順泰(국문85-89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동문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조카딸 丘在香(기약80-84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피아니스트)동문과 조카며느리 金惠英(기약81-85 광주대 음악학부 겸임교수·피아니스트)동문은 연주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국현대소설학회회장, 국어국문학회 대표 등을 역임하고 각종 문학상을 휩쓴 丘仁煥 동문의 '책 사랑'은 어릴 적 시골집 사랑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할아버지와 동네 어른들께서 사랑방에서 삼국지에 대해 토론하시면, 저는 다른 방에서 배를 짜고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춘향전을 읽어드리곤 했어요. 그때부터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국어교육과를 택한 것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을 동시에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출강하거나 방에서 글을 쓰는 동안 사부모녀를 모시고 집안살림을 책임지며, 자녀들을 올곧게 키운 것은 모두 아내(吳順禧씨)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해준 것이 없어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해요. 저녁시간에 일일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고, 인근 보라매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죠.”

장녀 丘在玉동문과 사위 金榮樺동문은 방송통신대 조교 시절 알게 돼 결혼하게 됐는데, 먼저 좋아한다고 프로포즈한 것은 丘在玉동문이었다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을 꺼내지 않아 在玉이가 먼저 고백했더니, 사위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뒤 적절한 때에 프로포즈하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다가간 것이 그간 오래도 풀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죠.”

유일한 공위도인 장남 丘在熙(화학공학

丘仁煥동문의 서울대 가족

장녀
丘在玉(가정교육68-72)

장남
丘在熙(화학공학71-79)

3녀
丘在珍(국문85-89)

사위
金榮樺(행대원71-73)
李政鉉(국문85-91·
경대원95-97)

제수
文瑛淳(국문51-55)

조카
丘在熙(경제77-81)

조카딸
丘在香(기약80-84)

조카며느리
金惠英(기약81-85)

조카사위
柳順泰(국문85-89)

71-79 한국신노포코 사장)동문은 현재 펄프, 도료, 제지, 잉크, 건재 산업을 화학 첨가제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04년 무역의 날에는 '수출 1백만불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자들과는 재 좌우명이기도 한 '고원한 이상, 평범한 생활'에 대해 논하며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 자녀들과는 그렇지 못해 항상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는 철저히 자기고자 노력했죠. '아침식사는 정해놓은 시간에 가족과 함께 먹는다.'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인부전화 할 때면 신신 당부합니다. '아침밥은 가족이 꼭 함께 먹어야 된다'고요.”

전년 퇴임한 후에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丘仁煥동문은 현재 장편 하나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생은 항상 '…ing'입니다. 소위 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어도 자녀들이 하나같이 작품활동이나 기술행발 또는 학문적 성취감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表)

건강을 지켜마다

심장질환,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

생활 환경의 서구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심장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의 증가 속도와 함께 치료도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1세기 의학에서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줄기세포 치료와 기능 유전체학(functional genomics)을 들 수 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심근의 일부가 손상된 심근경색에서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마지막 치료는 '심장 이식'이었다. 그러나 공여 심장의 부족으로 최근 심근세포의 재생이 줄기세포 치료로 가능하다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허혈성 심부전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줄기세포란 스스로 증식하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는 주로 초기 분열 단계의 태아로부터 채취되는데,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장기 형성 능력이 없으므로 사전에 입력하는 데에 따라 특정하게 배양될 수 있다.

2001년 프랑스에서 심근경색 환자의 손상된 심장근육 부위에 환자의 골격간 유래 세포를 주입한 결과 이식된 세포가 살아 있으며 심장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줄기세포는 최근 윤리적인 시비에 휘말린 배아세포, 제대(태중)혈에서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의 골수세포, 말초세포(성체 줄기세포) 등에서도 얻을 수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관 신생, 심장근육 재생요법에는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하므로 배아 줄기세포에서처럼 윤리적인 시비거리가 없으며, 환자에서 추출해 다시 주입하는 '자기 이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예로부터 심혈관 질환은 유전과 환경

을 공유하고 있는 특정 가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혈압·와상실 비대 등에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인 정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군을 찾아내고, 약물이 잘 듣는 적합한 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유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및 국외에서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를 심근경색 환자의 손상된 근육에 주입해서 심장근육과 혈관을 자라



崔 琇 然
(의학90 96)
모교 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게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번에 전달할 수 있는 심장병진단 칩(chip)이 일반 진료실에서 상용화돼 환자의 혈액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진단·질환 위험도·치료까지 종이 한 장에 출력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경색과 관련된 유전자의 위험도가 흡연에 의한 정도보다 낮은 약 1.5배 이하라는 점은 최첨단 의료 현실에서도 본인의 건강관리 습관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연락처: 2112-5500)

나의 건강법

하루 30분씩 블루스와 탱고 즐겨

金 正 鉉(불문51·56)얼굴 박물관장·예술원 회원·연극 연출가

필자는 건강이 넘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다고보다는 병약한 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말을 듣게 되니 의외이기도 했지만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 허기가 침심이 넘어서 가고 싶었는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보다 훨씬 건강했던 친구들이 허약한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들은 술도 많이 마

도 병을 극복하는 의지와 낙천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친구들이 병마로 인해 세상을 떠났거나 병마와는 관계없이 6·25전쟁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을 생각하면 남은 인생은 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다. 육신부리지 말고 결핵하게 살아야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며 미련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나의 생각이 건강의 비법이라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고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요즘 아내와 함께 20대에 주다가 그 후 별로 기회가 없어 추지 못한 블루스와 탱고를 하루에 30분 정도 춘다. 좋은 육체적·정신적 운동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얼굴, 박물관에서 부인과 함께(조선일보 사진제공)

시고 기체가 좋았는데, 비실비실 삼아온 나보다 먼저 떠난 것이다. 그러나 나의 건강법은 미지근하고 흐리멍덩하게, 말하자면 생명의 불꽃을 쫓아내고 사는데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절제의 선격을 띠고 있을망정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자유롭게 떠나고 싶을 때, 언제나 훌쩍 떠나려는 자유만능은 누리고 삼아온 것이다. 필자는 20대 후반에 폐병으로 3개월 입원 치료를 했으며, 60대 중반에는 심근경색으로 바이패스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생의 초반과 후반에 중병을 앓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행히 병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태어난 행운아라고도 할 수 있었으나 본인에게

실제로 내가 추는 탱고나 블루스는 50년 전 스타일로서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지시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때 내 아내는 15세 소녀였으니 노부부가 추는 춤이 아니라 10대의 소녀와 20대의 청년이 만나서 춤을 춘다고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배워서 춤을 추는 분들에게 내가 추는 블루스와 탱고는 '구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내가 추는 탱고가 아르헨티나 탱고로, 더 진짜라고 말해주는 분도 있다. 진짜이면 구식이긴 상관없다. 다 똑같이 춤을 춘다면 재미 없다. 나처럼 50년 전의 스타일로 제 멋대로 추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춤도 자유롭게 멋대로 취하 건강에 좋은 것이다.

교육부, 모교 법인과 법인화 제출

대학 인사·행정·재정 등 자율화

2010년까지 모교를 비롯한 국립대 5곳을 특수법인화하는 국립대 법인과 관련법안을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및 이와 관련한 대학회계제도 변경을 배례로 하는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관련 법안을 담은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을 盧武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모교 鄭東憲총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서울대의 법인화, 전문대학원 체제, 자유전공학제의 도입 등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다음 총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해 모교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법인이되게 도입되고 출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국내 최초 자동차대학원 설립

현대·기아차, 적극 지원키로

모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 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최근 현대·기아차그룹 鄭義九 회장 주축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동차 연구장학생 특강행사'에서 모교 鄭東憲총장은 "현재 서울대

내에 있는 '현대·기아 차세대 자동차 연구관'을 자동차 전문대학원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자동차 연구관'은 산학협력력을 통한 차세대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현대·기아차 그룹이 1

백35억원을 모교에 투자, 지난해 준공한 국내 최초 대학 내 자동차 신기술 연구기관이다.

鄭義九회장은 이날 "한국 자동차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동차산업이 후세를 위한 영구적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 양성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鄭東憲총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그룹 鄭

夢九회장과 사장단 및 현대·기아차 연구장학생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아공계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 전문인력으로 육성, 미래자동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인 엔지비(NGV)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연구장학생 제도를 도입, 장학생 지위와 학습교육 프로그램 등에 매년 4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동양학과 鄭義民교수 신임 미술관장에 선임



지난 1월 6일 미술관장에 미술대학 동양학과 鄭義民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鄭교장은 70년 모교 미술응용미술학과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도미, 美佛슬라대를 졸업했다. 출가시킨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술의 진단 전시예술품 등을 거쳐 모교에 부임, 미술대 동양학과 등을 역임했다.

모교 학술지, SSCI 등재 아태지역 교육에 기여

모교 국제학술지인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APER)'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자널에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등재됐다.

모교는 지난 1월 13일 모교 교육연구소가 펴내는 국제학술지인 APER 6권 1호가 국제학술정보기관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SSCI지명에 실렸다고 밝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전문가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행동과학분야 학술지인 APER은 아태지역 8개국 35개의 국제적 저명 학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을 실고 있다.

'연구 진실성위' 구성 업적·윤리 문제 등 감독

모교가 데이터 조작 등 논문 '부풀리기'를 감독할 '연구 진실성위원회'(가칭)를 이르면 이달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모교는 이 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논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연계와 인문계 양쪽에서 학문적 업적과 윤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후)

모교 소식



공대 金龍煥교수팀

로봇물고기 '로피' 개발

공과대학 조선헌양공학과 金龍煥(조선헌양83·87)교수팀이 물고기의 생김새와 운동을 모방한 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로봇 물고기를 뜻하는 영어(Robot Fish)에서 이름을 따 '로피'라고 명명한 이 로봇물고기 개발에는 조선헌양공학과 4년 과정인 군의 여학생이 있다. 과 군은 지난해 가을 학부 졸업논문 주제로 로봇 물고기를 선택했다가 모교까지 만들어졌다.

현재 로피는 버전 1.3까지 개발된 상태다. 1.1과 1.2는 내부와 외부 구조를 시험하기 위한 모델이며 로피 2.0의 개발실적도 많이 진척된 상태다.

로피 1.3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물고기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몸통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로봇 물고기는 대부분 몸통이 두세 부분으로 구분돼 있다.

반면 로피는 진짜 물고기처럼 몸통을 하나로 이었다. 이를 위해 고안한 방법이 철사를 이용하는

것이였다. 각각의 뼈대를 철사로 이은 다음 동력장치를 이용해 철사를 잡아당기면 몸통이 좌우로 움직인다.

이는 물고기가 헤엄칠 때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관절을 움직이고 그 관절의 움직임을 이용해 몸통을 움직이느냐는 사실에 착안했다.

徐光燾교수팀

나노반도체 기술 이전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徐光燾(전자공학72·76)교수팀은 기존 1억원과 10년간 매출액도 2배 이상 높은 나노급 초고속 반도체를 개발했다.

徐光燾교수팀이 개발한 이 반도체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자동차 레이더와 모바일 센서 등 초고속 광통신 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며 올해 전 세계적으로 35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KT&G 郭泳均사장

모교 신생아병동에 20억 지원

KT&G가 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및 신생아 환자 치료를 위해 모교 어린이병원 신생아병동에 20억원을 내놓았다.

KT&G 郭泳均(무역69·77)사장과 모교 成在植병원장은 지난 1월 24일 모교 병원에서 이 같은 지원내용을 담은 '새생명 지킴이 후원금'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돈은 난치성 뇌거혈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

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기기 지원, 신생아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연구에 쓰이게 된다.

郭사장은 "이번 지원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구하고 국가적으로 출산율과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미노피자 오광현 대표

어린이병원에 2천만원 전달



도미노피자코리아 오광현 대표(사진 좌)가 지난 12월 28일 모교 어린이병원(원장 黃龍男)에 블루밴드 기부 2천만원을 전달했다. 오대표가 전달한 기금은 2개월간 도미노피자 본사와 가맹점 등 전 임직원이 어린이 환자를 돕기 위해 1인 1개 블루밴드 구입 캠페인을 전개해 모은 것이다.

도미노피자는 앞으로도 임직원 및 배달원·마이크로스트 모두 근무시간에 블루밴드를 착용해 일반 국민에게 불투명도 캠페인을 앞장 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교 어린이병원은 해마다 1백여원 가까이 반성하는 적자를 해결하고자 소속 의사들이 직접 블루밴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블루밴드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Blue Sky'라는 문구가 새겨진 푸른색 팔찌를 착용하고 또 이 팔찌를 판매하는 후원회 활동이다.

교직원 성금 모아 복지시설에 전달

모교는 지난 1월 26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교직원이 모은 성금 1천8백80여 만원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랑의 밥집' 등 관악구 소재 1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鄭東憲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사랑의 밥집을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동정

수상

▲**姜德洙**(국문49-53 상근대 명예교수)=지난 1월 16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서울고총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인상 수상.

▲**韓鳳福**(의학52-58 前부신인사분우회장·한복전내과의원장)=최근 한미수필문학상 우수상 수상.

▲**南時旭**(정치54-58 前문화일보사장·세종대 석좌교수)=지난 1월 16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언론학회로부터 제1회 임승준자유언론상(논설·논평부문) 수상.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다산홀에서 '수학의 정석'으로 3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

▲**鄭雲燦**(경제66-70 모교 총장)=지난 1월 12일 서울 불라자호텔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중앙회 신년교례회에서 제2회 자랑스런 충청인 대상 수상.

▲**黃斗淵**(한대원74주 前대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태평

양 고문)=지난 1월 13일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시킨 공로로 웅조2년장훈장 수훈.

▲**黃永基**(무역학71-75 우리금융지주 회장)=지난 1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인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신문사로 부터 제15회 다산금융상 대상 수상.

▲**南洪吉**(화학75-82 포스텍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0회 한국과학상(생명과학부문) 수상.

▲**金東植**(화학76-80 연세대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0회 한국과학상(화학부문) 수상.

▲**姜錫興**(수학80-84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0회 한국과학상(수학부문) 수상.

▲**權永佑**(전자공학84-88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9회 젊은 과학자

상 수상.
▲**崔元鎔**(공위화학84-88 포스텍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9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李廷勳**(기계설계85-89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9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權基太**(사회86-92 동아일보 문학부 기자)=지난 1월 16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대한언론학회로부터 제1회 임승준자유언론상(문학작품부문) 수상.

▲**李祥林**(SXS 8기 공간종합건축 대표)=지난 1월 16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서울고총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인상 수상.

▲**申明浩**(행정66출 前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최근 영국계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서울 회장에 취임.

▲**鄭南鉉**(화학공학56인 前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전산원 이사장)=지난 1월 13일 고려대 전자공학대 석좌교수에 임명.

▲**慎鎭亨**(사회57-61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백범학술원장)=지난 1월 17일 한성학원 법인이 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金榮秀**(법학60-6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지난 1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고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취임.

▲**韓弘基**(경제61-65 한국외대 교수·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지난 1월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선임.

▲**李千洙**(법학61-65 前순천향대 총장·전안대 총장)=지난 1월 23일 학교법인 대진대 제5대 총장에 선임.

▲**車興奉**(사회62-69 前보건복지부 장관·한림대 교수)=지난 1월 13일 한국장애인복지지원협회 회장에 선임.

▲**鄭喜成**(국문64-68 승문고교 교사)=지난 1월 21일 서울 사가동 출판문화관에서 열린 민족문학작가회의 총회에서 제16대

이사장에 선임.
▲**朴孝瑞**(가인64-68 前남호문화재단 이사·모교 서양음악연구소 감사)=지난 12월 1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직장에 선임.

▲**成宏模**(전자공학65인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1월 1일 임기 1년의 대한전자공학회 제36대 회장에 취임.

▲**金正泰**(상학66-70 前국민은행장)=지난 1월 17일 서남해안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서남해안포럼

대표에 선임.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논설주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지난 1월 12일 중앙일보 주필 겸 전무이사에 선임.

▲**李鎭熙**(법학70-74 LG경영개발원 사장)=지난 1월 23일 LG에드 자주회사인(주)GIR 상근 부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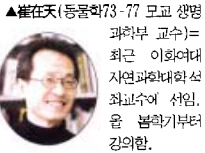
▲**宋彭享**(독문75출 의료통상부 차관보)=지난 1월 25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장관급)에 임명.

▲**李亨奉**(지리71-75 경기지방경찰청장)=지난 1월 4일 제57대 치안총수 및 제13대 경찰청장에 내정.

▲**任炳善**(식물학71-75 목포대 교수·세계생태학회 명예회원)=지난 1월 24일 목포대 제5대 총장에 선출.

▲**金容采**(행정71-75 변호사·광주경찰청 공동대표)=지난 1월 23일 학교법인조선대 제14대 이사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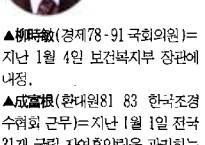
▲**鄭海南**(법학72-76 법무법인 회담 대표변호사)=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



▲**金鍾宇**(공영교육73-77 장·민주구조전설턴트 대표)=최근 서울 삼성대(이)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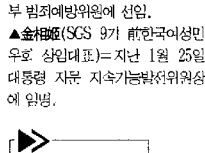
▲**金鍾宇**(경제78-91 국회의원)=지난 1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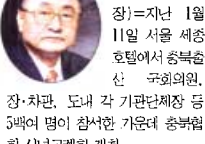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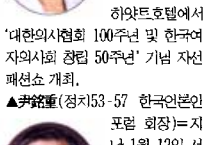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9기 前한국여성민주노조 상임대표)=지난 1월 25일 대통령 자원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



▲**金鍾宇**(기계공학48 52 임광호 건 회장·충북협 회장·분회 회장)=지난 1월 11일 서울 세종 호텔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 장·차관, 도내 각 기관단체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협회 신년교례회 개최.



▲**金鍾宇**(의학51-57 경원대 총장·대한의사협회 100주년위원회 위원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및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 패션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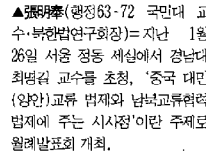
▲**金鍾宇**(정치53-57 한국인본인 포럼 회장)=지난 1월 1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SK텔레콤 金信瑞(산업공학74-78) 사장을 초청, '미래통신산업의 트렌드와 SK텔레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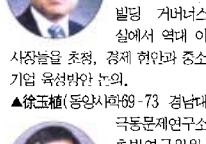
▲**金鍾宇**(응용미술56-62 성산여대 명예교수·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지난 1월 18~23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31에서 '장운우 금속초대전' 개최.



▲**金鍾宇**(행정63-72 국민대 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월 26일 서울 정동 세산에서 강남대 최병길 교수를 초청, '중국 대만(양안) 교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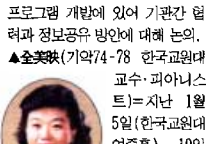
▲**金鍾宇**(법학63-6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지난 1월 24일 공간 창립 27주년을 맞아 63빌딩 거버넌스실에서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 경제 현안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논의.



▲**金鍾宇**(동양사학69-7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본보 논설위원)=오는 2월 17일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으로 부터 '金正日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연구-先軍政治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음.



▲**金鍾宇**(경제70-74 산업연구회장)=지난 1월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 발전 비전 2020'을 주제로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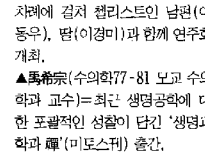
▲**金鍾宇**(가정관리77졸 한국소비자보호위원장)=지난 1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관간 협력과 정보공유 방안 등에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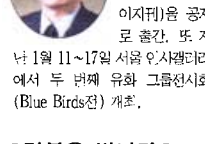
▲**金鍾宇**(기약74-78 한국교원대 교수·파나나스트)=지난 1월 5일(한국교원대 연주회), 10일(서울 압구정동 클라비어홀) 두 차례에 걸쳐 첼리스트인 남편(이동우), 딸(이경미)과 함께 연주회 개최.



▲**金鍾宇**(수의학77-81 모교 수의학 교수)=최근 생명공학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이 담긴 '생명과 학파' (미토스)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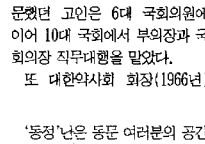
▲**金鍾宇**(대학원79-83 동원친소 상공인지원센터장)=최근 수필동인지 '내 안에 열린 아침'(엠아이지)을 공저로 출간. 또 지난 1월 11~17일 서울 인사캠퍼스에서 두 번째 유화 그룹전시회(Blue Birds)를 개최.



▲**金鍾宇**(AMP 29기 한국박물관협회장)=지난 1월 1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전국 박물관·미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2006년 신년교례회' 개최.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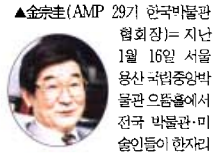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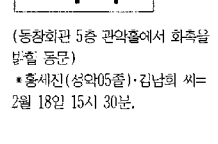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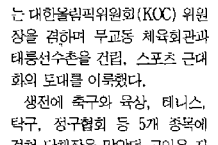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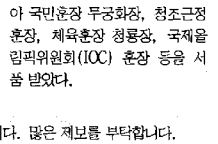
▲**金鍾宇**(SGS 9기 前한국여성민주노조 상임대표)=지난 1월 25일 대통령 자원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



▲**金鍾宇**(기계공학48 52 임광호 건 회장·충북협 회장·분회 회장)=지난 1월 11일 서울 세종 호텔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 장·차관, 도내 각 기관단체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협회 신년교례회 개최.



▲**金鍾宇**(의학51-57 경원대 총장·대한의사협회 100주년위원회 위원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및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 패션쇼 개최.



▲**金鍾宇**(정치53-57 한국인본인 포럼 회장)=지난 1월 1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SK텔레콤 金信瑞(산업공학74-78) 사장을 초청, '미래통신산업의 트렌드와 SK텔레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회 개최.



▲**金鍾宇**(응용미술56-62 성산여대 명예교수·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지난 1월 18~23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31에서 '장운우 금속초대전' 개최.



▲**金鍾宇**(행정63-72 국민대 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월 26일 서울 정동 세산에서 강남대 최병길 교수를 초청, '중국 대만(양안) 교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金鍾宇**(법학63-6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지난 1월 24일 공간 창립 27주년을 맞아 63빌딩 거버넌스실에서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 경제 현안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논의.

▲**金鍾宇**(동양사학69-7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본보 논설위원)=오는 2월 17일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으로 부터 '金正日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연구-先軍政治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음.

▲**金鍾宇**(경제70-74 산업연구회장)=지난 1월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 발전 비전 2020'을 주제로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金鍾宇**(가정관리77졸 한국소비자보호위원장)=지난 1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관간 협력과 정보공유 방안 등에 논의.

▲**金鍾宇**(기약74-78 한국교원대 교수·파나나스트)=지난 1월 5일(한국교원대 연주회), 10일(서울 압구정동 클라비어홀) 두 차례에 걸쳐 첼리스트인 남편(이동우), 딸(이경미)과 함께 연주회 개최.

▲**金鍾宇**(수의학77-81 모교 수의학 교수)=최근 생명공학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이 담긴 '생명과 학파' (미토스)를 출간.

▲**金鍾宇**(대학원79-83 동원친소 상공인지원센터장)=최근 수필동인지 '내 안에 열린 아침'(엠아이지)을 공저로 출간. 또 지난 1월 11~17일 서울 인사캠퍼스에서 두 번째 유화 그룹전시회(Blue Birds)를 개최.

▲**金鍾宇**(AMP 29기 한국박물관협회장)=지난 1월 1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전국 박물관·미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2006년 신년교례회' 개최.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金鍾宇**(SGS 47기 한국사회복지개발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최근 청소년보호육성회 부이사장, SRS 시민기자, 법무

부 범죄예방위원에 선임.

▲**金鍾宇**(의학73-77 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사위원)=지난 1월 25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宇**(정지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분노 논설위원)=지난 1월 13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鍾宇**(한대원81 83 한국조경수련회 근무)=지난 1월 1일 전국 31개 국립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선임.

▲**金鍾宇**(AMP 56기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지난 1월 20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

</

신 간

권장도서 해제집

—서울대학교 편



모교 교수들이 선정한 고전 1백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해당 도서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작가와 작품 세계는 물론, 그와 관련한 읽을거리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한 해당 작가와 해당 분야의 다른 저서들을 추가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관심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문학과 철학을 위해서 과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분야의 고전을 상징적으로 선정한 이 해제집은 열린 지식의 보고인 셈이다. (서울대학교출판부권·값15,000원)

전주 최씨 뿌리 根枝葉

—崔炳魯 著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로 역임한崔炳魯(경계화 49·59) 동문 이 지난 1994년 8월 장년퇴임한 후 10여년의 각고 끝에 '根枝葉'이란 제목으로 전주 최씨의 씨족사를 펴냈다.

이 책은 전주 최씨의 자랑스러운 조상의 위업을 체계있게 정리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송조 의식을 전수·함양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根枝葉'은 전주 최씨를 하나의 큰 나무로 가정하여 나무의 뿌리(根)는 빛나는 조상, 줄기와 가지(枝)는 화족한 전족, 그리고 잎사귀(葉)는 번성하는 자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신조어다. (전주최씨중앙회수화권·값20,000원)

책 사냥 발자취

—李鎮昊 著



사토 수전 과정의 여관을 전해주는 책.

51개 항목 85건의 자료를 서술하며 역사적 사실을 불러일으키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자 했다. 20개 항목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해 후기를 더했고, 31개 항목은 새롭게 저술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조선임야본포도', '개교회사를 찾아서 15년' 등 여러 학자들의 수집 일화 6편과 신문에 실린 미국인 소포의 글을 함께 수록했다. (도서출판우물권·값25,000원)

知性과 反知性

—柳根一·洪浩約 시국대담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柳根一(정치56집)동문과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인 洪浩約(정치83집)동문이 대담을 통해 한국의 변혁운동사를 생생히 복원했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의 문제점을



리더십의 과제를 제시했다. (기파랑권·값15,000원)

자성재료학

—曹 培 대표저자



한 남대광·전자물리학과 曹 培(물리교육68집) 교수가 한남대 손대락·권태승 교수 등과 함께 자성의 원리와 그 응용에 관한 한 자료를 3년에 걸쳐 정리, 편집했다.

이 책은 자성재료의 전공이나 대학원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했다.

자성의 원리 이해는 피도록 물리학의 first principle에 근거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접근했으며, 그 응용의 필수적 내용은 최대한 모두 수록했다. (북스윙권·값22,000원)

언론홍보 핸드북

—申東謨 著



남남이 패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함과 동시에 뉴라이트 정치운동의 맥락에서 새로운

어 편집장)등인이 홍보 담당자의 고민거리를 찾아낸 92가지 해법을 제시한 언론홍보 실무지침서.

이 책은 홍보 담당자는 물론 CEO나 회사 간부, 공무원, 정치자금생이 언론을 상대할 때 헷갈려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해답을 주고 있다.

申東謨는 언론이 뉴스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하면 보도자료를 잘 쓸 수 있는지, 기자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알려주는데 내용의 절반 가량을 할애했다. (코리안뉴스와이어권·값15,000원)

도로 위의 과학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愼富鎭 著



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인 요소를 모아놓았다.

'대안 없는 대안'은 우리의 질박한 에너지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되는 길을 그려 보이면서, 이를 위해 위자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반핵운동 대신 함께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

이라고 호소한다. (지성사권·값16,000원 / 생각의 나무권·값13,000원)

비즈니스 中國語

—朴室相·金光熙 공저



여러 사람들과 직접 주고받았던 대화를 생생하게 담았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중국의 여러 법규나 우리와는 다른 중국인의 사고 방식, 그리고 체험에서 우러나온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만나볼 수 있다.

인제대 金光熙(종문71·75)교수가 이 책의 체계를 구성하고 중국어 문장을 강조했다. (컴퓨터미디어권·값12,000원)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

—金一龍 著



해'를 펴냈다.

부산에서 3대에 걸쳐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해온 金一龍은 허준 동의보감에서 한방임상심법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물성 약품 및 식품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 도간 강상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도서출판 시바림·비매출)

동향·특별·광고

한층 성숙한 동문으로 거듭나자!

올해는 모교가 개교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세계 속에 역동하는 한국을 있게 하고 이끌어 온 주역, 우리 동문 모두가 한층 성숙하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젊은 학창시절의 학구열이나 성과 그리고 열면 토론능력 등의 지성만으로 부딪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 역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때론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비변하고 힘들게 더러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인생은 올바르게 가려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 반면 그 어떤 즐거움도 함께 하는데 있다는 '인생은 道樂'이라는 글귀에 새삼스럽게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양성과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주도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마 다 개인적인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서울대 동문을 하나로 묶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커다란 울타리(네트워킹)를 튼튼히 만들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겠습니다.

시간에 발맞춘 일부 부정적인 일로 인해 쏠아지는 주위의 파장은 시선을 바리보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동문, 동창회 및 모교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동문간 친목과 함께 우리 동문 각자가 겸손이라는 해녀의 좋은 덕목을 더 갖추어 "모든 일이 정을 맞는다"는 황간의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囊中之難'의 좋은 이미지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동문간의 단결을 이끌어 수 있

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 동창회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 세계 속의 30만 서울대 동문 모두가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인 스스로가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禹成奉

(농공79-83)

한국문화예술신문 발행인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질책이나 애정이 담겨있는 충고는 보람된 글이나 글쓰기에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동문, 삶의 에너지 충전소 같은 동창회 그리고 병실상부한 학문의 전당 모교가 삼위일체로 하나로 묶여 유기적인 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과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는 커다란 사명을 동문에서 충분히 떠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금부터라도 지근 거리에 있는 동문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 속의 약자인 분을 그리고 어두운 곳이 있다면 가까이 찾아가 도울 수 있고 베풀을 바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業 빛내는 것이 모교 사랑

총동창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여러 선배님들과 각계를 대표하는 동문들께서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모교를 사랑하자, 모교를 생각해야 된다, 모교를 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모교를 가장 잘 돕는 것인지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까 합니다.



朴室相

(AMP 97/AIC 97)

월드조인트 사장

첫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수에 맞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최고가 되든, 세계에서 최고가 되든,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회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열심히 일해야 동문이 운영하는 곳에 자주 가게 되고, 지능과 선진도 하게 되지 않을 까요. 모교 찬조를 적게 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빛내면 이것이 곧 모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자신의 건강에 앞맞는 일과시간을 배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을 위해 4시간, 건강을 위해 4시간을 투자하는 등 체계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

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철저하고 근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는 별수 있느냐는 핀잔을 주는 동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현재 35년간 가스밸브 등을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IMF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 중국 투자를 결심, 지난 2000년 '10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2011년이 되면 40년간 한 업종에서 종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1등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한국에서 1등, 5년 후에는 아시아에서 1등, 2011년에는 세계에서 1등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5년이 경과한 현재 아시아에서 1등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세계 1등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55세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중국 상해 복단대학과 교통대학에서 각각 1년씩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했으며, 2005년에는 '미국 비즈니스 중국어' 책을 발간해 시간을 쪼개어 강단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거나, 또 57세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해 화강의 나이에 각종 인라인 대회에서 거꾸로 1, 2등을 하지만, '즐거움, 건강하게 살자'는 취미를 가지고 오늘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5시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9시에 잠이 듭니다. 4시간 근무하고 건강을 위해 4시간을 투자하니 체중도 68kg에서 63kg으로 줄었으며,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는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자연히 분수를 위해 찬조도 하게 되고, 건강장수도 누릴 수 있어 이것이 가장 정확한 모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연예인 동문 특집기사 다뤘으면...

4개월 전부터 회보를 받아 보고 있는 새내기 동문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주말에만 집에 가는 편인데 매달 어머니가 회보를 받아 두셨다가 전해주곤 하십니다. 어쩌면 동창회보가 편지한을 통해 받아보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회보를 받아 볼 때마다 같이 들어가 있는 지로 열수증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야지, 내야지' 비음만 듣고 지금까지 미뤄왔네요. 이번에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를 내야 계속 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회보를 받아도 품품이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흥미를 갖고 읽기엔 다소 주제가 무겁고 딱딱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한문도 읽는 것을 조금 방해하고요. 주로

제목과 필자의 학과·학번만 읽는 셈이죠. 간혹 회비납부 명단을 읽으면서 어느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도 회보 덕분에 동창회식이랄까, '내가 이곳에서 공부했었다'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도 가끔 재미있게 읽시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지난 회보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기사는 장하림님 기금 출연 내용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10억원은 모으셨지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10억원을 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부 소식을 접하면서 서울대의 자력이라까, 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림) 孫承植(정남이) 동문이란 사실



柳 慧 楨

(대학원02-04)

심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연구원

도 지난 회보를 보고 싶었고, 딸들도 한참 리산생각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연예인 동문 중에 김태희 씨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언제 한번 연예인 동문 특집 기사를 실어 보면 어떨까요? 젊은 동문 뿐 아니라 모든 분들

이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요. 강력 추천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일 속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이 아니었나요? 金順信(교수님)의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글 정학을 받고 품품이 읽어 왔더니 의외로 새로운 정보가 많군요.)

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새로운 IT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읽어보면 정치적인 내용이 많은 듯 한데, 그 범위를 문화, IT 등으로 넓히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어버린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군요. "내가 늙으면 나이가든 옛 친구들을 만나 회창시절을 추억하거나 군대 시절을 되돌아보는 일뿐이란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친구 관계를 잘 하도록 하거라!" 이번 주말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 "너 회보 읽어 본 적 있나"하며 술 한 잔 해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광은△김기현△김기남△김기성
△김강수△김강영△김강태
△김정현△김정국△김태재
△김태호△김형기△김훈석
△노필택△문재현△박상현△박상준
△박상준△박용우△박찬진△박찬영
△송인규△신상기△신성웅
△신세균△신정훈△신희경
△신영수△연승호△오지환
△유규현△유준우△윤기철
△윤영석△윤영철△이강덕△이건희
△이건희△이길호△이두식
△이상훈△이정훈△이영희
△이원희△이종훈△이재철
△이주호△임상진△임영재
△정강진△정경석△정영진△정홍근
△정복문△정성민△정현석
△조현석△정영민△정원민
◆지연△지영민△지미영
△김연정△김지영△김진규
△김철호△김현기△김효신
△문지영△박정현△박상진△배민갑
△최희문△신은지△오미자
△최병민△이범철△이영호
△전희호△정원교△조운정
△조운희△조성희△조성철
△치재훈△최성순△최희웅
△최대환△한미정△홍주영
△최국환△정병관
◆김노태△김병태△김지윤
△김태재△박승수△박석우
△이유정△최현주△최은숙
◆김영대△고희완△김건수
△김병준△김성준△김용근
△김태경△문종광△박용립
△박찬진△박상진△사영호
△성태원△신일수△신희철
△양성진△유성기△유성우
△이재원△이종훈△이진욱
△정명호△정순환△정청우
△홍승호△홍창수
◆공대△강관원△강시은
△강세준△강우형△강영호
△강윤재△강태갑△곽병현
△강우철△곽영철△곽은우
△곽창환△구영관△구기환
△구정모△구준현△권연오
△권정모△권희선△김기철
△김영△김기범△김기현
△김대원△김동국△김병근
△김문기△김수상△김수철
△김상민△김상훈△김성길
△김성복△김성우△김영기
△김영철△김영우△김종우
△김은환△김인명△김임수
△김재원△김지환△김정민
△김정현△김정훈△김종성
△김준호△김주철△김준호
△김준호△김철환△김철호
△김종호△김영석△김철태
△조효동△전경열△남광희
△노동현△노태욱△노문희
△문정현△박명태△박재현
△박상호△박상진△박승우
△박신희△박영준△박일재
△박재현△박정동△박정기
△박진식△박민희△박연현
△박현우△박철환△박홍근
△박희영△배민호△배기환
△백봉근△백용현△변지영
△부준호△부승국△서종호

△서수현 △서유수 △서장원 △서지원 △서경원 △서완주 △서다현 △서수영 △서은석 △송진우 △신경호 △신성영 △신지수 △신관학 △심재원 △심호성 △안동민 △안인성 △안종현 △안홍삼 △안진호 △이대현 △이영민 △이우정 △이재철 △이원성 △유근철 △유명환 △유승현 △유관현 △유영환 △유재국 △유희원 △윤경원 △윤여경 △윤영환 △윤종민 △윤화식 △이영호 △이국환 △이거영 △이대원 △이대희 △이미숙 △이민우 △이병희 △이상규 △이상민 △이상철 △이석준 △이성호 △이세기 △이승우 △이정환 △이영환 △이영희 △이재용 △이재원 △이진욱 △이정삼 △이태준 △이태영 △이필원 △이관현 △이현호 △임종현 △임진백 △장세현 △장우철 △장재원 △장재원 △장준원 △장지호 △장지석 △전대국 △전재철 △전홍기 △정기봉 △정동식 △정수영 △정우영 △정우진 △정윤환 △정은희 △정재원 △정종혁 △정준원 △정희철 △조부재 △조수현 △조영현 △조영현 △조일재 △조정일 △조한도 △조성재 △차영철 △채성기 △채희동 △채복식 △최우영 △최홍호 △최재원 △최진호 △한은관 △한동호 △허재영 △홍기성 △홍승원 △홍재원 △황성진 △황수현 △황호남 △황희규

◆동대 △권철 △김순호 △김삼권 △김동수 △김명수 △김명수 △김진호 △김영환 △김용성 △김영환 △김재민 △김재동 △김진관 △김진호 △김정성 △류오락 △명용재 △박서영 △박경호 △박장삼 △박진영 △박관규 △배대규

△변안석 △변종봉 △서범수 △서정원 △서영훈 △서재중 △송병관 △신준식 △양준식 △오영민 △유재중 △이홍 △이경환 △이경희 △이경희 △이근하 △이기건 △이대직 △이동진 △이상훈 △이서준 △이세원 △이성희 △이재영 △이재원 △이창구 △임성미 △임성자 △임종문 △성경태 △정경근 △정대집 △정돈철 △정식문 △정원호 △정재석 △정희재 △조부재 △조신중 △조영환 △지근진 △최석기 △최호성 △허정희 △황영자

◆문리대 △고문종 △곽영천 △김경환 △김남진 △김민욱 △김상복 △김성림 △김시준 △김영국 △김현철 △김형익 △나기웅 △노태돈 △박영환 △박재준 △박정자 △박종철 △박한재 △박화민 △박상경 △신홍범 △심갑진 △심도의원 △오상환 △오재원 △오요원 △문준환 △유홍선 △유희영 △윤영호 △윤재정 △윤재현 △이민성 △이민용 △이병조 △이석우 △이석중 △이용대 △이육재 △이지현 △이정민 △이정삼 △이주형 △이현기 △이효정 △이희용 △장덕주 △장영대 △장희호 △전두배 △전병희 △정 숙 △정경근 △정만호 △정병해 △정서구 △조우현 △조신광 △조영수 △조영태 △최신목 △최신봉 △최연규 △최인성 △최대호 △최광철 △한상복 △한상복 △한정우 △한규호 △홍순호 △황재원 △황희태

◆미대 △구경모 △김민선 △김병욱 △김영자 △김영혜 △김종현 △김진태 △나희규 △남경일 △박경희 △박영규 △박은경 △배영경 △신현경 △안명숙 △양진석 △여종섭

△유환 △유재국 △윤여수 △이금영 △이영철 △이소영 △이우성 △이정애 △이주태 △임미영 △임의석 △임정일 △장진호 △장우진 △장재일 △장형석 △전성철 △정훈 △정보원 △정영호 △정의원 △정정자 △진수연 △최영 △최승관 △최재영 △최종식 △최현선 △한진성 △홍경희 △황숙련

◆법대 △강영수 △강진기 △구종덕 △구상준 △권상경 △권일용 △권관국 △김경연 △김경호 △김기수 △김대영 △김대원 △김보근 △김상태 △김성훈 △김수식 △김태환 △김재환 △김정우 △김정일 △김정호 △김종태 △김진홍 △김충섭 △김영두 △박동원 △박동원 △박문수 △박수복 △박태범 △박지철 △박정식 △박종보 △박종국 △박종철 △박대동 △박광호 △선인원 △선영삼 △송경숙 △송정호 △송남석 △송재영 △송재원 △송진원 △송진진 △산종관 △안기영 △안재홍 △안철수 △안지현 △오동근 △오영삼 △원우목 △원희종 △유두환 △유석원 △유종철 △이광진 △이동준 △이병준 △이석범 △이성재 △이성준 △이승환 △이원구 △이유구 △이재동 △이준성 △이진우 △이희관 △이희정 △임정수 △임정원 △전용덕 △정경호 △정동일 △정성우 △정순식 △정영덕 △정종목 △전정숙 △최경지 △최덕규 △최범하 △최성수 △최윤식 △최영준 △최지석 △최연민 △한민하 △한진식 △한영삼 △황경남

◆시대 △강양아 △강학수 △강희성 △고경순 △공복숙 △고규호 △고광선 △구본식 △권민하 △김광진 △김기주

△김두용 △김상철 △김성자 △김수신 △김용관 △김은하 △김익수 △김인숙 △김종원 △김기우 △김현철 △김희수 △나은주 △노환진 △민영민 △민영철 △박규관 △박영덕 △박정일 △박진민 △박희영 △박희원 △박남준 △변희준 △성홍수 △수재순 △신경수 △신동로 △신일정 △심경철 △안승룡 △양신관 △양태영 △여승수 △오태용 △유경자 △유재상 △윤대환 △윤명철 △윤석원 △이덕기 △이동규 △이병우 △아은하 △이일호 △이재원 △이종명 △이종철 △이진성 △이태성 △이혜숙 △이환복 △이홍성 △이희영 △임수진 △임종태 △정영철 △장선영 △장유미 △전영석 △정대환 △정준영 △정종환 △정태범 △최귀남 △최근우 △최성영 △최성규 △최영철 △최재근 △최종국 △최종진 △피재호 △한상규 △한규원 △홍강호 △홍성규 △홍은표 △황정기 △황종복

◆상대 △강신용 △김화중 △권영대 △김도승 △김병덕 △김선정 △김주복 △김종삼 △김계수 △박병식 △복한재 △손성철 △송인기 △전정철 △염재현 △오우성 △오래진 △유양현 △이기현 △이대영 △이만용 △이두규 △이복식 △이상학 △이용성 △이재원 △임복규 △정점식 △정태원 △최현영 △하리숙 △하병우 △홍성인 △홍순호 △홍일표 △황정길 △황진기

◆생태대 △권영민 △김정희 △김재경 △박경태 △손화준 △오일환 △유숙희 △이신영 △이원숙 △임한주 △한숙영 △한혜진

◆수의대 △권대기 △김경진 △김종수 △김호준 △나기현

△내병우 △박영수 △서강남 △서승철 △성의재 △수태영 △신현정 △심정희 △오병철 △이병이 △이종석 △임진호 △홍소관 △홍병주 △홍성수 ◆악대 △김희정 △고운정 △권혜숙 △김석관 △김성홍 △김종구 △김종국 △김종중 △남정원 △류한호 △명호영 △박성영 △박성원 △박영민 △박종우 △성대현 △송진홍 △신정훈 △신성문 △송성원 △염기정 △우재민 △윤명철 △이갑희 △이문형 △이종재 △지성희 △최광조 △최용식 △한정원 △송우일 △송봉자 △황정희

◆음대 △공숙자 △곡안숙 △김경희 △김동수 △김미연 △김성아 △김영희 △김민하 △김지영 △김지훈 △김진승 △김현정 △김현희 △문희선 △박미숙 △박상욱 △박종호 △박정배 △박지수 △박희경 △배성연 △서은영 △신민환 △심현숙 △안성준 △엄병경 △오미혜 △오유애 △오진희 △원형실 △유신선 △윤의중 △이기영 △이희희 △이성준 △이성혜 △이영주 △이정순 △이혜정 △임동환 △임정원 △임현숙 △정은희 △조동진 △자은애 △하영일 △한은진 △함진지 △하미경 △하은정 △홍성림 △황성식

◆경대 △김연식 △김종필 △라현주 △박관숙 △이우성

〈의대·치대·대학원·교대원·보대원·협대원·한대원·AMP·AP·ACAO·ABP·SGS·CHCN·APC·HPM·AMPP·APC·AFB·AMPP·ACMP·GLP 남부지역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12월 계: 37,260,596원
평생회비: 49,583,200원
입회비: 70,000원
총계: 1,329,670,409원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 조흥은행 397-01-100736 [예금주 : (재)관악회]

◆50억원

△입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김영필(생물교육54졸)

◆10억원

△곽영필(토목공학36-60)

△김문종(경제학59-63)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김형주(토목공학46-50)

△홍성내(수학57-63)

◆2억원

△강진호(의학48-52)

(1차분)

◆1억원

△오영민(상유공학67-71)

△최희진(상유공학58-64)

◆5천만원

△이승준(상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졸)

△이종민(경제학59-63)

△장재봉(사회사업60-64)

◆3천만원

△유석훈(부역61-65)

·박영희(기약70졸)

◆2천만원

△김원임(건축학61-65)

·최미혜(상학66-70)

◆1천80만원

△새범태(의학60졸)

△조내구(의학58-62)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권희용(불어불문39-63)

△김기춘(법학58-62)

△김종현(경제학55-59)

△김진규(기계공학61-66)

△남정현(건축학57-61)

△박진희(무역학76-80)

△안 훈(수의학53-57)

△윤세균(경제학45-51)

△이영석(경제학48-64)

△이영필(항공공학66-71)

△조장훈(자원공학75-81)

△최선진(사회교육75-79)

△하영기(정치학44-48)

△화성로(AMP 11기)

◆5백만원

△강영현(토목공학61-65)

△백사익(화학40-42)

◆3백만원

△규진호(법학50-58)

△이창기(의학55-59)

◆2백만원

△박정우(경제학80-84)

△한규범(AMP 42기)

△허원호(전자공학71-75)

◆1백만원

△장종표(외교학76-83)

△장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김덕원(수의학50-54)

△김보환(상학50-55)

△김광민(상학52-56)

△김유재(상학54-58)

△김인중(법학56-60)

△김정일(공공학58-64)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영(법학55-60)

△김진우(의학54-58)

△김태원(제약학71-75)

△김희기(불어교육72-76)

△김홍준(수학74-78)

△문대원(경영학71-75)

△박성철(법학75-79)

△박영원(지리학74졸)

△박종현(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배기산(AMP 25기)

△신장수(법학70-74)

△안지복(전자공학76-80)

△오복동(법학57-63)

△오태원(법학53-57)

△이근수(신대원89졸)

△이두현(법대원74졸)

△이용우(공업교육64-68)

△백사익(상유공학54-58)

△이종복(응용미술62-66)

△장제실(상학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정경모(법대원65-67)

△정명희(의학65-71)

△정병일(북아문78졸)

△정병태(정치학49-53)

△정정실(행정학61-65)

△정홍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부재(사대원65-67)

△신홍일(외교학62-66)

△최병재(상학48입)

△최종여(물리학52-56)

◆50만원

△박소진(신대원70졸)

△김강중(정치학66-70)

△김재현(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신정택(AMP 48기)

△유종삼(중어중문66-70)

△이인재(자살과학64-72)

△이창호(기계공학55-61)

△정성민(행정학68-72)

△조상근(법대원61졸)

△최동수(경영학65-69)

△최소환(치의학73-79)

△최현주(전기공학76졸)

△홍석주(경영학72-76)

◆30만원

△구분무(농공학62-66)

△김기탁(의학68-7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동진(대학원49졸)

△김태수(영문학57-64)

△박우규(토목공학70-75)

△박현상(법학76-80)

△서경식(행정학67-71)

△최재홍(공산학52-56)

△유영일(기계공학65-69)

△이종희(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항철(경제학54-58)

△이화근(공산학55-70)

△임수진(ACAD 56기)

△조상수(의학62-66)

△정성준(공산학58-64)

△조효승(경제학84-88)

△전주환(상유공학64-68)

△한봉수(응용미술70-74)

◆25만원

△김태준(기계공학83-91)

◆20만원

△김효식(치의학57-61)

△곽영철(농공학59-65)

△김남용(축산학53-57)

△김동원(종대원83-88)

△김성로(토목공학52-56)

△김영도(축산학68-75)

△김용규(경제학78-82)

△김의식(상대원문46-49)

△김창근(법학51-55)

△김종섭(의학65졸)

△김희경(생물교육70-74)

△류종택(외교학56-61)

△박병용(경제학80-84)

△박유예(공법학84-88)

△박준정(선학학73-77)

△신우종원(법학41졸)

△신영일(교육심리53-57)

△김재열(상학63-71)

△안태호(경제학45-53)

△양재현(경제학92-97)

△오규원(행정학65-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정복(종대원86-88)

△유영식(치의학59-65)

△이유희(가정학64-68)

△이영기(법대원70졸)

△이홍택(영어교육59-64)

△장기남(경제학61-68)

△정동성(농공학57-63)

△정영근(조선항공58졸)

△정영웅(화학71입)

△정의호(수의학64-68)

△최재홍(공산학65-69)

△최수강(간주학70-77)

△최홍택(경제학57-61)

△홍제화(상학66-70)

◆15만원

△조재창(지리교육61-65)

◆12만원

△김정구(농화학84-88)

◆10만원

△김홍주(법학57-62)

△구분무(경제학66-70)

△김대진(기계공학71-75)

△김경중(치의학72-79)

△김광원(대학원73-78)

△김광원(의학66-72)

△김금림(의학62-66)

△김길영(ABP 19기)

△김남현(상학53-57)

△김대선(공법학81-85)

△김대중(경제학66-70)

△김대환(기약89-93)

△김동원(신대원78-82)

△김명진(조경학78-84)

△김문경(전기공학90-94)

△김성민(ACAD 30기)

△김승국(심리학56-60)

△김영태(응용미술59-66)

△김영호(잠시학65-69)

△김용기(경제학56-62)

△김정숙(사대원69졸)

△김정복(치의학60-66)

△김정목(농생물학59-65)

△김정환(의학50-56)

△김철수(경영학75-79)

△김화정(수학89-94)

△내원평(사법학86-94)

△문철현(상학56-60)

△민경식(전기공학50-55)

△박육현(치의학53-57)

△박원진(행정학51-55)

△박종학(컴퓨터공학96-01)

△박진환(농경제학48-52)

△박정진(보대원70-72)

△황성호(의학66-72)

△배소수(교육학67-74)

△서봉서(AMPFRI 1기)

△성명훈(의학76-82)

△송영호(치의학57-61)

△송정진(의학54-58)

△오건주(생물교육76-80)

△오봉국(축산학48-52)

△오선창(상학62-66)

△윤석현(정치학46-49)

△이병삼(사회학61-65)

△이수범(토목공학68-72)

△이원호(축산학65-69)

△이문재(경대원71-72)

△이원순(역사교육45-49)

△이재일(법학76-80)

△이현철(경제학54-58)

△이희주(치의학67-73)

△전금자(보대원72-74)

△전태수(치의학56-60)

△정 용(상학61-65)

△성성학(ACAD 54기)

△정연하(정치학61-65)

△정희용(외교학64-68)

△조인환(AMP 13기)

△주영숙(치의학55-59)

△최근선(행정학54-58)

△최진수(의학64-70)

△하순복(국어교육60-64)

△황병선(외교학64-71)

△황성문(의학54-60)

(2008년 2월 3일까지 출